

##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최석환

- 종신대 신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
- 종신대 철학박사(Ph.D.)
- 미국 자살예방센터(SPC) 수료
- 현 육군 제6군단
- 진군교회 담임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한국군종목사단 선사인 캠페인 TF장



### 들어가는 말

2005년 6월 19일 최전방 GP에서 총기 사고로 여덟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sup>1</sup> 2011년 7월 4일 강화도 해병부대에서 총기 사고로 부대원 네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sup>2</sup> 2011년 7월 10일

<sup>1</sup> <국방일보>, 2005. 6. 20. 1면.

<sup>2</sup> <국방일보>, 2011. 7. 5. 2면.

포항의 한 해병부대에선 일병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들 모두 구타나 가혹 행위,<sup>3</sup> 집단 따돌림 등의 악습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sup>4</sup>

2011년 7월 4일 총기 사건 이후 해병대는 2011년 7월 18일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군·해병대 지휘부와 장병,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해병대 예비역 및 일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 문화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sup>5</sup> 병영 문화 혁신 대토론회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 등 비위를 저지른 해병에게 해병대 상징인 ‘빨간 명찰’을 떼어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병영 악·폐습 척결 명

<sup>3</sup> 육군본부, <안전 학습 프로그램> (대전: 국군인쇄창, 2011), 13. 폭행 및 가혹 행위 등은 사고가 아니라 범죄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이다.

<sup>4</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상담심리코칭학회 엮음, <목사님, 도와주세요! 병영 상담 2> (서울: 콤팩출판사, 2012)를 참조하라.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행하는 군대 내 끊이지 않는 악습에는 많은 양의 과자 또는 빵 등을 강제로 먹게 하는 ‘PX빵’,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엽문’,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 테스트’, 다리에 테이프 붙여 체모 뽑기, 담뱃불을 손바닥이나 손등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 구타, 비타민 5-10알 강제 취식 등도 있다. <군선교 신문>, 2011. 9. 30. 3면을 참조하라. 심리적 외상은 전쟁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 강간, 성폭행, 중요한 사람의 죽음, 이별, 창피를 당한 경험, 심한 좌절경험, 심각한 질병, 신체적 장애나 심한 불안, 그리고 가족과 상급자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심리적 외상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 하며, 증상이 한 달 미만인 경우를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라고 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김은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중재”, 한국군상담심리학회, <PTSD와 군 상담> (서울: 한국군상담심리학회, 2011), 1, 3.

<sup>5</sup> <국방일보>, 2011. 7. 19. 1면. ‘병영 문화 혁신 대토론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구타는 우리보다 훨씬 후진 국가, 제3세계 국가에만 일부 남아 있다. 구타와 가혹 행위는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절대 요인이 된다. 여러분 사이에서 구타·가혹·집단 행위가 누구로부터 촉발될 때에는 ‘이 사람이 우리 해병대를 갇아먹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선진 군대로 올라설 수 없다”고, 병영 문화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령을 위반하면 사령부 차원에서 소속을 변경하고, 명령을 위반한 부대를 해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었다. 또한 구타·가혹 행위, 폭언·욕설, 기수 열외, 작업 열외 등 병영 내 각종 악·폐습 척결과 관심 병사 식별 및 관리 대책, 작전 기강 확립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sup>6</sup>

아울러 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장병 관리를 위해 지휘관 및 주임 원사에 의한 병력 관리,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에 의한 병력 관리,<sup>7</sup> 사고 예방 교육 실시, 비전 캠프 실시<sup>8</sup>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해병대와 군의 추진 방안과 연계하여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을 부정적인(negative) 접근 방식에서 긍정적인(positive) 접근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sup>10</sup> 본 연구자는 그 방안 중 하나로,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sup>6</sup> 해병대는 병영 혁신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외부 기관의 진단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 컨설팅, 옴부즈맨 제도 등 선진 제도를 도입하며, 가정과 학교·예비역과 연계한 병영 혁신도 추진키로 했었다. <국방일보>, 2011. 7. 19. 1면을 참조하라. 옴부즈맨(ombudsman)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세계 최초의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맨이다.

<sup>7</sup> 병영 생활 전문 상담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으로 상담 여건 보장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2006년부터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을 선발해서 2006년 8명, 2007년 12명, 2008년 42명, 2009년 105명, 2010년 106명, 2011년 95명, 2012년 148명을 운영하고 있다.

<sup>8</sup> 비전 캠프 프로그램은 2003년 개발되었으며, 육군의 중요한 사고 예방 시스템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였다. 다음을 참조하라. 육군본부, 《비전 캠프 2007》(서울: 도서출판 뉴컴, 2007), 4.

<sup>9</sup> 정택수, “군 장병 자살 위기 관리 실태 분석 및 대책 방안”, 육군3사관학교, <제1회 장병 위기관리체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대전: 국군인쇄창, 2012), 189-194.

<sup>10</sup> 육군본부, <공정형 리더십> (대전: 국군인쇄창, 2012), 3. 공정형 리더십이란 마음, 말, 행동을 부정적인 접근방식에서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여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임무 완수에 전력 투구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선사인 캠페인’ (sunshine campaign)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선사인 캠페인의 정의, 추진 경과 사항, 부대 부작용 장병 식별 방안, 5대 실천 사항, 5대 세부 실천 사항, 실천 사례, 그리고 의의와 발전 방향과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 1. 선사인 캠페인의 정의

‘선사인 캠페인’은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의 애칭이다. ‘선사인 캠페인’은 대한민국 1004 군인 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기독 장병들이 병영 생활에서 천사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하는 전우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병영 내 잘못된 관행과 악습이 있다면 올바르게 개선시키는 등, 더 좋은 군사가 되어 사고 없는 건강한 병영을 만들자는 캠페인이다.<sup>11</sup> 즉 선사인 캠페인은 육·해·공군·해병대 1004 군인 교회와 기독 장병들이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부대 사고 예방과 병영 문화 개선에 앞장서자는 기독교 실천 운동이다.

앞으로 본 연구자는 ‘선사인’을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첫째, ‘선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의미한다. 둘째, ‘선사인’은 병영 문화를 밝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의미한다.

<sup>11</sup>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건강한 병영만들기 선사인 캠페인’ 전단지 (등록번호 12-5-30).

## 2. 선사인 캠페인의 추진 경과 사항

### 1)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첫 기사

〈군선교 신문〉은 선사인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기사를 보도하였다. 특집으로 편성된 첫 번째 기사는 2011년 8월 16일자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는가? 1004 군인 교회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여 생명력 있는 건강한 병영을 만들자! 기독 장병들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병영을 만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는 글이다.<sup>12</sup> 기독 장병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군대 내 존재하는 악습을 뿌리 뽑고 힘들어하는 전우들에게 배려와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와줌으로 새로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자고 하였다.

### 2)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 제시

2011년 9월 30일자 〈군선교 신문〉은 “건강한 병영 만들자! 선한 사마리아 캠페인은 1004 군인 교회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 사명, 절박한 상황에 있는 전우들에게 다가가 문제 해결에 실제적 도움을 주자. 기독 장병들이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도하였다.<sup>13</sup>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으로 선한 마음, 정확 진단, 응급 조치, 계속 치료, 사후 관리를 제시하였다.

2011년 10월 31일자 〈군선교 신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식 신앙생활,

군대 내 사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는 기독 장병이 되자! 기독 장병들은 신자화보다는 신앙화를 통해 건강한 병영을 만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다하자”라고 보도하였다.<sup>14</sup> 그 기사는 2011년 10월 13일 한신대학교 신대원 예배실에서 열린 제11회 한국교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 개최 예배에서 박종화 목사가 선포한 말씀 전문을 게재하였다.

박종화 목사는 “사마리아 사람은 피해자를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과 가슴이 아픈 것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중략)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라고 하십니다”라고 강조하였다.<sup>15</sup>

### 3)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TF팀 회의 개최 및 5대 세부 실천 사항 제시

2011년 10월 4일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1004 군인 교회 캠페인 사역으로 공식 결의하였다. 이후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TF팀<sup>16</sup>이 조직되었고, 세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1차 회의는 2012년 1월 19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실시하여 2012년 2월 8일 군종목사 영성 수련회 기간 중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브리핑하기로 결의하였다. 2차 회의는 2012년 1월 25일 육군 제6군단 진군교회에서 실시하여 브피핑 시 제시할 캠페인의 동기, 목적, 대상, 5대 실천 사항, 5대 세부 실천 사항을 토의하였다.

<sup>12</sup> 〈군선교 신문〉, 2011. 8. 16. 1면.

<sup>13</sup> 〈군선교 신문〉, 2011. 9. 30. 1면.

<sup>14</sup> 〈군선교 신문〉, 2011. 10. 31. 3면.

<sup>15</sup> 〈군선교 신문〉, 2011. 10. 31. 3면.

<sup>16</sup> 한국군종목사단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TF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TF팀 지도 한국군종목사단 중앙위원 김태식 목사, 팀장 최석환 목사, 팀원으로 육군 박요섭, 김성훈, 해군 정모세, 공군 김현우 목사이다.

마침내 2012년 2월 8일 군종목사 영성수련회 기간 중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으로 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를 제시하였다. 3차 회의는 2012년 3월 26일 한국기독교군선교 연합회에서 실시하여 2012년 4월 12일 전반기 종단지원회의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신우회 지도교사 세미나 시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을 교육하기로 결의하였다.

#### 4)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애칭과 슬로건 확정

2012년 3월 30일자 <군선교 신문>은 “캠페인 공식 명칭을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애칭: 선샤인 캠페인)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과 ‘당신이 천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스티커, 휴대용카드, 전단지, 포스터 등을 배포하기로 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TF팀과 군선교연합회가 2011년 3월 26일 실무 회의를 갖고 결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을 3월 28일 한국군종목사단 중앙위원회와 군선교연합회 정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 5) 선샤인 선포 주일

2012년 4월 30일자 <군선교 신문>은 “모두가 선샤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 6월 3일 선샤인(선한 사마리아인) 선포 주일, 1004 군인 교회마다 기도와 홍보와 나눔 실천으로 새 문화를 만들자”라고 보도하였다.<sup>17</sup> 2012년 5월 31일자 <군선교 신문>은 “내가 먼저 선샤인이 되자!”라고 보도하였다.<sup>18</sup>

<sup>17</sup> <군선교신문>, 2012. 4. 30. 3면.

<sup>18</sup> <군선교신문>, 2012. 5. 31. 1면.

2012년 6월 3일 선샤인 선포 주일을 앞두고 1004 군인 교회에서 누가복음 10장 20-37절의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이다.

실제적으로 올해 6월 3일 선샤인 선포 주일 예배 시 육·해·공군·해병대 1004 군인 교회에서 동시에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었다. 각 교회 상황에 따라 설교 시 군종목사가 직접 제작한 PPT를 활용하여 장병들의 동기 부여를 도왔으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편집 영상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병영을 만들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특송과 특별 헌금 순서를 갖기도 하며, 5대 실천사항을 구호로 외치기도 하였다. 선샤인 주일은 단지 좋은 캠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 좋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오기도 하였다.<sup>19</sup>

#### 6) 선샤인 서약식

2012년 6월 30일자 <군선교 신문>은 “대한민국 선샤인 서약, 제22회 6·25상기 기독교 장병 구국성회 대성황, 기독교 장병 약 3,400명이 선샤인 실천서약”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sup>20</sup> 특별히 제22회 6·25상기 기독교 장병 구국성회 둘째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1004 군인 교회 비전 2020 및 선샤인 사역 페스티벌 행사를 가졌다. 이 시간에 3,400여 장병이 부대 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선샤인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서약을 한 장병들은 기독교 장병으로서 육·해·공군·해병대 각급 부대에서 선샤인 활동을 다짐하였다. 선샤인 서약서는 “나는 기독교 장병으로

<sup>19</sup> <군선교 신문>, 2012. 6. 30. 3면. 선샤인 선포 주일을 지키고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육군 6군단 최석환 군종목사, 60사단 고재천 군종목사, 해군 1함대 정찬수 군종병, 공군 군종실 김광일 군종목사, 해병대 연평부대 이구 군종목사이다.

<sup>20</sup> <군선교 신문>, 2012. 6. 30. 1면.

서 병영 생활에 힘들어 하는 동료 전우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어 주며, 따뜻하고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선사인) 사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는 좋은 군사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2012. 6. 22 서약인 ○○○(서병)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귀중”으로 되어 있다.

### 3. 부대 부적응 장병 식별 방안

그렇다면 선사인들이 누구를 도울 것인가? 바로 부대 부적응 장병들이다. 부대 부적응의 원인은 우울, 불안, 분노나 적대감, 정신증, 대인 관계 어려움, 인지 능력 저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자는 선사인들이 부대 생활을 하면서 부대 부적응 장병을 쉽게 식별하는 방안을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현장 대처 매뉴얼’에서 인용한 몇 가지 질문들로 제시하고자 한다.<sup>21</sup> 이러한 질문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논할 선사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과 5대 세부 실천 사항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 1) 수면 문제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중간에 자주 깨고 잠을 설치는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가?<sup>22</sup> 의도적으로 잠을 자려 하지 않는가?<sup>23</sup> 욕설과 괴성 등이 포함된 과격한 잠꼬대를 하고, 이 현상이

<sup>21</sup> 대전상담연구소, ‘군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현장 대처 매뉴얼’ (대전: 대전상담연구소, 2008), 5-10.

<sup>22</sup> 일조점호 시간에 조는 모습이 관찰되거나, 개인 시간과 정비 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확인해 보고, 수면을 방해하는 선임병 혹은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 2) 식사 문제

끼니를 자주 거르려고 하고 식사량이 급격히 줄거나 반대로 과식을 하는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주로 혼자 앉으려 하는가?

#### 3) 건강 문제

자주 복통이나 두통 등의 신체증상을 호소하는가? 구토를 자주 하는가? 화장실에 가면 너무 오래 있다가 나오는가?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해 보이거나 안색이 좋지 않은가? 외래 진료를 자주 받기를 원하는가?

#### 4) 위축되거나 무력한 행동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가? 일과 후 단체 활동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혼자 있는가? 혼자서 전화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 갑작스럽게 개인 행동이 많아졌는가? 목소리가 작아지고 쉽게 무기력해졌는가? 남들이 웃는 상황에서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웃지 않는가? 가능한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행동이 눈에 띄게 느려졌는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동공이 풀려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가? 자살에 관해 언급하는가?<sup>24</sup>

<sup>23</sup> 과도하게 흥분해 있거나, 반대로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지만 본인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긴장되거나 불안한 행동

얼어 있거나 긴장하고 있거나 겁에 질려 있는 행동이 자주 관찰되는가? 눈치를 자주 보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하는가?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가?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는가? 숨기는 것이 많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말을 잘 더듬는가?

### 6)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

쉽게 화를 내고 화가 나면 종종 문이나 벽을 주먹이나 발로 차는가? 성미가 급하고 뜻대로 안 되면 상황이나 대상에 상관없이 성질을 부리는가? 선임병에게 대드는가? 말다툼을 자주하고 동료들과의 갈등이 잦은가? 동료나 후임병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가?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하는가? 경계 근무 중 총을 자주 만지작거리는가? 사회에서 뒷골목 생활을 했었음을 은연중 암시하는가?

<sup>24</sup> 육군본부, <안전 학습 프로그램>(대전: 국군인쇄창, 2011), 33. 자살징후 목록표를 참조하라. 주위 동료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죽고 싶다고 표현하는가? 수첩, 노트 등에 삶을 비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부모, 동료, 애인, 상관, 형제들에게 유서를 작성했는가? 말이 없어지고 대화를 회피하는가?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업무 회피 및 염증을 표출하는가? 고립되고 위축된 행동을 하는가? 매사에 흥미를 상실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가? 행동이나 표정이 밝지 않고 항상 우울한가? 죄책감을 표현하는가? 식사를 잘 안 하거나 의욕없이 식사하는가? 한밤중에 앉아 있거나 초조하여 잠을 못 자는가? 숙면이 불면으로, 불면이 숙면으로 변했는가? 사물함을 정리하며, 빌린 돈을 갚는 행동이 있는가? 가까운 전우와 차분한 대화를 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물건을 전달하는가? 몸치장을 하고 내복을 갈아입는 등 행동의 변화가 있는가? 평소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언행 등 현실 도피나 죽음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는가? 세상을 저주하고 삶의 애착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가? 이성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언행이 있는가? 쫓기듯 초조해지고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이 있는가?

### 7) 상식을 벗어나는 기괴한 행동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 반복해서 떠올라 괴롭다고 하는가? 목적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는가? 상식을 벗어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는가? 환청을 듣는가? 헛것을 보는가? 참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가? 무언가를 기록하는 횟수가 많아졌으며 기록한 내용을 숨기는가?

### 8) 대인 관계 문제 및 갈등

본인이 다른 병사들을 따돌리는가?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동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자유 시간에는 주로 혼자 있을 장소를 찾는가? 자신의 힘든 사정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동정을 유발하는가?

### 9) 휴가 관련

과도하고 빈번하게 휴가를 보내 달라고 하거나, 휴가 나가는 사람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빈번히 관찰되는가? 휴가 후 복귀 시간을 매번 지키지 못하는가?

### 10) 업무 관련

설명을 해도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가? 일을 시켜도 잘 못하거나 하지 않는가? 장교나 선임들에게 물어봐야 할 상황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가? 훈련이나 작업 등 근무 시에 매우 수동적으로 행동하는가? 선임병임에도 불구하고 지시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지시를 내리면서도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

#### 4. 선사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

박종화 목사는 <군선교 신문>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많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화와 동시에 신앙화, 생활 신앙화가 같이 선행되어야 군대가 변화되고, 군대에는 군종목사가 필요하게 되고, 군대에 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중략)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부대에서 실천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군종 목회를 합시다. 병영 목회를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먼저 함께 아파합시다. 그러면 병영이 하나님의 가슴을 닮아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sup>25</sup>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실천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독 장병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 좋은 전우가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33-35절을 보면, 선사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sup>26</sup>

첫째, 선한 마음이다(눅 10:33).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정확 진단이다(눅 10:34).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한다. 셋째, 응급 조치이다(눅 10:34). 강도 만난 자에게 통증 완화를 위한 기름과 살균을 위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맨다. 넷째, 계속 치료이다(눅 10:34).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계속 돌본다. 다섯째, 사후 관리이다(눅 10:35).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을 하면서

계속 돌보아 주도록 한다. 끝까지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하는 것이다.

#### 5. 선사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

본 연구자는 한국군종목사단 선사인 캠페인 TF 팀장으로서, 미국 자살예방센터(Suicide Prevention Center)<sup>27</sup>의 위기 전화 모델을 중심으로 5대 세부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선사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인 선한 마음, 정확 진단, 응급 조치, 계속 치료, 사후 관리를 5대 세부 실천 사항인 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와 각각 연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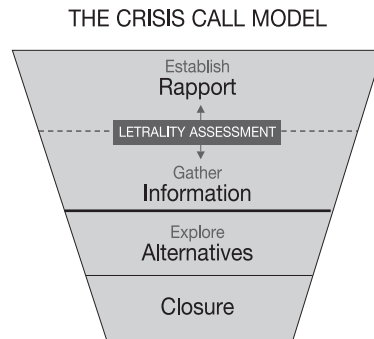
선사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은 24시간 위기 전화 운영을 위한 발런티어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 자살예방센터의 네 단계 위기 전화 모델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위기 전화 모델은 라포 형성(Establishing Rapport - Lethality Assessment), 정보 수집(Gathering Information), 대안 탐구(Exploring Alternatives), 마무리(Closure)이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선사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 중 인사하기는 라포 형성에 해당하며, 경청하기는 정보

<sup>25</sup> <군선교신문>, 2011. 10. 31. 3면.

<sup>26</sup> <군선교신문>, 2012. 6. 30. 3면.

<sup>27</sup> 미국 자살예방센터(SPC)는 2012년 창립 54주년이 되었다. 저자가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 연수를 받으면서 획득한 SPC 2008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 16분마다 1명씩 자살하며, 거의 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자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또한 자살로 죽은 사람들의 절반 가량이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다고 한다. Didi Hirsch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주소는 4760 S. Sepulveda Boulevard Culver City, CA 90230이며, 전화번호는 310-390-6612이다. 별도의 건물인 Suicide Prevention Center(SPC) 주소는 11133 W. Washington Boulevard Culver City, CA 90232이다. 전화번호는 310-895-2300이다. 미국 자살예방센터(SPC)에 걸려오는 모든 위기 전화에서 확인해야 할 다섯 개의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자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2개월 안에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총이 옆에 있습니까? Suicide Prevention Center, *CRISIS LINE TRAINING MANUAL* (2008), 32.

수집, 동행하기와 칭찬하기는 대안 탐색, 선행하기는 마무리에 각각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8</sup>



### 1) 인사하기

인사하기는 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병을 보고 찾아가서 라포를 형성하는 선사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 라포는 하나 되게 하는 신비로운 접촉제처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장병과 공감적인 얼굴 표정을 지으며, 눈을 맞추며, 악수하며,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것이다.<sup>29</sup>

<sup>28</sup> Ibid.

<sup>29</sup> 육군본부, 《참 군인의 길》(대전: 국군인쇄창, 2012), 73. 맥아더 장군은 부하의 이름과 성격, 속마음까지 알기를 원했다. 맥아더 장군의 10가지 체크 리스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부하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부하에게 정신적인 용기를 주고 있는가? 나는 약한 사람이나 잘못을 저지를 자를 구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가? 나는 부하의 이름과 성격, 속마음까지 알 수 있는가? 나는 임무 수행, 조직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숙지하고 있는가? 나는 남에게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일이 없는가? 나는 부하들이 나를 기꺼이 따르고 싶도록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부하에게 실행 가능한 임무를 맡기고 그 임무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가? 나는 인격이나 몸가짐, 예의 등에서 부하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 웃으며 인사하기<sup>30</sup>
- 눈을 맞추며 인사하기
- 악수하며 인사하기
-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기

### 2) 경청하기

경청하기는 도움이 필요한 장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사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sup>31</sup> 경청을 할 때는 도움이 필요한 장병의 언어적 메시지를 마음으로 공감하며,<sup>32</sup> 귀로 집중하고, 입으로 맞장구치며 경청하고, 눈으로 비언어적 메시지인 행동을 관찰하며 경청하면 좋을 것이다.<sup>33</sup> 즉 신체적 행동, 눈 행동, 얼굴 표정을 보면서, 목소리의 고저와 크기와 속도와 톤 등을 들으면서 경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up>34</sup>

<sup>30</sup> 최석환, “웃음 치료사”, 합동참모본부, 〈합참〉 제28호(2006), 97-100; 노먼 커즌스, 양역관 · 이선아 역, 《웃음의 치유력》(서울: 스마트비즈니스, 2007), 171 참고.

<sup>31</sup> 국방부는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경청한다는 콘셉트(concept)로 24시간 365일 자살 예방 위기 상담 핫라인인 ‘국군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전화 상담(수신자 부담): 일반전화 080-007-0179, 02-794-0179, 군 전화 국적 900-0179, 육군 960-0179, 해군 910-0179, 공군 920-0179, 해병대 928-0179, 사이버 상담: 인트라넷 www.lifeline.mil, 인터넷 www.mndic.mil.kr. 또한 국방부는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을 24시간 실시간 운영하고 있다.

<sup>32</sup> 스티븐 E. 콘, 빈센트 D. 오코넬, 김광수 역, 《함께 일하고 싶은 팀장》(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6), 99-100. 콘에 의하면, 공감이란 말은 감정을 이입한다는 뜻의 그리스어 ‘empathia’에서 유래했으며, 다른 사람의 독특한 경험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sup>33</sup> 스티븐 오거니, 토머스 네블 공저, 전지현 역, 《리더를 세우는 코칭》(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4), 32; 마츠모토 유키오, 은영미 역, 《7일 만에 말을 잘하게 되는 책》(서울: 나라원, 2003), 90.

<sup>34</sup> 육군본부 군종실, 《군 동료 상담 길라잡이 함께 걷는 친구》(서울: 셋방기획, 2009), 39-52. 힐(Hill)은 격려의 의미인 ‘encourages’로 경청의 자세를 말했다. 즉 부드러운 시선 접촉 유지(eye contact), 적절한 횡수의 고개 끄덕임(head nods), 비언어적 행동 이해를 위해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 존중(cultural difference), 내담자를 지향한 열린 자세(open stance), 관심을 기울여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짧은 “음”(um)을



- 마음으로 공감하며 경청하기<sup>35</sup>
- 귀로 집중하며 경청하기
- 입으로 맞장구치며 경청하기
- 눈으로 행동 관찰하며 경청하기

### 3) 동행하기

동행하기는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는 응급조치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장병과 함께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 조치적 역할을 하는 선사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sup>36</sup> 어려움에 처한 장병들은 그 누군가가 자신과 동행해 준다면 자존감을 급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행하기는 임재 사역으로, 기독교 장병들이 경제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도움이 필요한 장병과 예배하며 동행하기, 기도하며 동행하기, 운동하며 동행하기, 놀이하며 동행하기 등을 추천한다. 즐거운 놀이 활동에는 음악듣기, 악기 연주하기, 영화

사용, 이완되고 자연스러움(relax), 주의를 분산시키는 비언적 행동 피하기(avoid), 내담자의 문법적 스타일과 말의 속도에 맞추기(grammatical style), 제3귀로 듣기(a third ear), 내담자와의 사이에 적절한 공간 두기(space)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C. E. Hill, *Helping Skill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sup>35</sup> 공감적 경청(empathetic listening)은 무엇보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것에 대한 판단 혹은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물을 보는 관점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스티븐 오거니, 토머스 네블 공저, 《리더를 세우는 코칭》, 31-32; 육군 종합행정학교, 〈군종업무 Know-How〉 (대전: 국군인쇄창, 2011), 126-127.

<sup>36</sup> 게리 채프먼, 장동숙 역, 《5가지 사랑의 언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61-82.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이다.

보기, 편지쓰기, 그림그리기, 목욕하기, 조크하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sup>37</sup>

- 예배하며 동행하기
- 기도하며 동행하기
- 운동하며 동행하기
- 놀이하며 동행하기

### 4) 칭찬하기

칭찬하기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계속 치료해주는 것처럼, 병영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병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계속 치료하며, 자존감을 높이며, 새 힘을 불어넣는 데 효과적인 선사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

해병대상륙지원단 상륙지원대대장 강송구 중령은 병영 문화 혁신의 첫 단추는 2011년 7·4 사건이었고, 종결자는 〈국방일보〉의 ‘칭찬합시다’ 캠페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sup>38</sup> 그는 칭찬하기를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칭찬하기는 도움이 필요한 장병의 자존감을 최고로 높여주어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sup>39</sup>

<sup>37</sup> 최석환, “정신적 차원의 자살 예방법”, 육군종합행정학교, 〈남성대〉 (2009년 제2호), 168-174; 오승근,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살 예방 실천 방안”, 한국 생명의 전화, 〈2012 지역사회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교류 워크숍-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실천 방안〉 (2012), 176; 더 트리 그룹, 자살 예방 전문가 과정 4, Level 4 Worksheet 23(1), 2006. 참고적으로 국제 심리학 자문 그룹인 더 트리 그룹은 뉴욕과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다. 그룹 산하의 다섯 영역에서 기업 자문, 경험 과학에 기초한 심리사회적 통계 연구, 법정 심리 서비스, 심리 평가 및 출판, 영어 및 한국어권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up>38</sup> 〈국방일보〉, 2012. 5. 23. 20면.

<sup>39</sup> 육군본부, 〈참 군인의 길〉 (대전: 국군인쇄창, 2012), 8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잠언 27:21)는 말씀처럼, 우리 선사인들도 칭찬하기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병을 강하게 단련할 수 있을 것이며,<sup>40</sup> 그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치료하고 병영 문화를 혁신하는 선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여 군생활을 위한 동기 부여를 해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칭찬하여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며, 개인적으로만 칭찬하는 것 대신에 할 수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칭찬하여 자신이 인정받는 군인임을 느끼게 하고,<sup>41</sup> 과장되지 않고 적절하게 칭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기
-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 공개적으로 칭찬하기
- 적절하게 칭찬하기

## 5) 선행하기

선행하기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을 하면서 사후 관리를 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장병에게 끝까지 책임있는 사후 관리를 하는 선사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 즉 어려움에 처한 장병을 한 번 만나 도움을 주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적 차원

<sup>40</sup> 조현삼, 《말의 힘》(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128-129. “비판을 받으면 사람이 움츠러들고 방어적이 된다.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칭찬은 사람에게서 불순물을 분리해 낸다. 사람은 원광석과 같다. 금이 섞인 돌 말이다. 칭찬을 통해 사람 안에 서도 돌과 금이 분리된다. 원광석에서 돌을 제거해 내면 금만 남듯이, 칭찬으로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면 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칭찬은 사람을 금같이 존귀하게 만든다. 금 같은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sup>41</sup> 존 맥스웰, 레스 패로트, 한근태 역, 《신뢰를 얻는 25가지 심리 기술 작은 시작》(서울: 다산라이프, 2008), 59; 신시아 샤프로, 공혜진 역,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서울: 서돌, 2007), 245.

에서 계속 접촉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선행하기의 예로, 교육 훈련 등 부대 생활에 부적응하고 있을 때 잘 적응할 때까지 부대생활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sup>42</sup> 힘든 업무 도와주기, 부적응 장병을 식별하여 지휘 라인으로 보고하기, 안전한 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제거하기 등을 추천한다.

- 부대생활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선행하기<sup>43</sup>
- 힘든 업무 도와주는 선행하기
- 부적응 장병을 식별하여 지휘라인으로 보고하는 선행하기<sup>44</sup>
-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제거하는 선행하기<sup>45</sup>

<sup>42</sup> 최석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국방부, <참된 삶> (서울: 화신문화, 2005), 9-13.

<sup>43</sup> 구체적인 선행하기를 예를 들면, 후임병이 체조 틀려도 괴롭히지 않고 가르쳐 주기, 점호 후 선임병은 자고 후임병은 담당 구역 청소하는 관행을 깨고 함께 청소하기, 식사 시 선임병만 테이블에 손 올리지 않고 모두 자유롭게 식사하게 하기, 근무 관련 암구호와 시간과 근무자 현황 등을 후임병이 확인하여 선임병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선임병이 직접 확인하기, 신병 전입 시 근무 요령이나 서열에 대해 암기 강요하지 않기, 장난을 방자한 레슬링, 복싱, 목 조르기, 팔 꺾기 등 하지 않기, TV채널을 선임병 마음대로 선택하여 보지 않고 자유롭게 보게 하기, TV 시청 시 침대, 관물대, 포포에 기대는 등 자유롭게 보게 하기 등이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육군본부, <긍정형 리더십> (대전: 국군인쇄창, 2012), 28.

<sup>44</sup> 정택수, “군 장병 자살 위기 관리 실태 분석 및 대책 방안”, 육군3사관학교, <제1회 장병 위기 관리 체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대전: 국군인쇄창, 2012), 195. 상담 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휘 조치(외출, 외박, 휴가, 전속, 보직 변경),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 정신과 군의관, 군종 장교, 법무관에게 의뢰, 가족이나 애인에게 서신을 띄움, 가족이나 애인을 부대로 초청하여 지휘관(자)이 직접 상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성금을 모아 전달, 장교가 외출, 휴가 시 병사의 개인적 일을 대신 보아줌,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학력이 높은 병사가 학력이 낮은 병사의 학습을 도와주도록 주선, 분대장에 의한 전입 신병 관리, 상급자나 업무에 대한 소원 접수 및 정기적인 집단 상담 기회 마련, 정기적으로 같은 부대 내의 병사나 장교에게 편지를 쓰도록 함, 친한 동료 병사를 통해 상황의 진전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접근 등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손영철, <군 상담 이렇게 합니다>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89-90.

## 6.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례

〈군선교 신문〉에서 실시한 기독교 장병 인터뷰를 통해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sup>45</sup>

### 1) 23사단 일병 김대진

“○○대대 근무 중인 병사 중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실 위기였는데, 대대 군중병 병장이 계속적으로 따뜻한 격려와 배려로 보살피주고 또한 간부에게 사정을 전달하여 휴가도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후 그 형제는 부대 생활에도 잘 적응해 나갔으며, 교회에도 출석하게 되었다.”

### 2) 26사단 상병 구요한

“사단 군중병들끼리 상담 활동을 같이한다. 상담 일지를 써서 관리하는데, 병사 중에 부인이 출산을 하는 병사가 있었다. 원래 갈 수 없는데 상

담일지로 보고가 잘되어 휴가를 가게 되었다. 상담이라고 해도 앉아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샤워할 때, 운동할 때 등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물어보고 밀착형 상담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 3) 52사단 상병 심종한

“여자 친구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자해도 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한 병사가 있었다. 그 병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엇이 그 병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들어려고 했다. 처음에는 분노가 많아서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마음을 열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고 내 경험을 나눴다. 결국 감사하게도 자해를 멈추고 자살 시도도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병사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

“한 병사는 자대 배치를 받고 어리숙한 편이라 뒤처져서 고참들에게 지적받고 밋보여서 무엇을 해도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함께 있거나 마주 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처음에 미숙한 것은 당연하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잘 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라며 격려해 주었다. 또 같은 생활관에 있는 병사들이 그 병사에게 편견,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인식을 바꾸려고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며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 7. 선사인 캠페인의 의의

선사인 캠페인의 의의는 몇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sup>45</sup> 예를 들면, 방치된 노끈류, 야전상의 조임끈, 전투화끈, 운동화끈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육군본부, 〈안전 학습 프로그램〉 (대전: 국군인쇄창, 2011), 16-17; 정택수, “군 장병 자살 위기 관리 실태 분석 및 대책방안”, 육군3사관학교, 〈제1회 장병 위기 관리 체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대전: 국군인쇄창, 2012), 193.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적 예방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조용범, “충동적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 환경 구축에 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 K. Hawt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thods of suicide as a means of suicide prevention.” *I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icidal behavior: From science to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sup>46</sup> 〈군선교 신문〉, 2011. 9. 30. 3면.

### 1)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전환

비전2020사역이 영혼 구원 전도 사역이라면, 선사인 캠페인 사역은 영혼 구원 받은 기독교인이 사랑의 삶을 생활화하는 실천 사역이다. 그러므로 선사인 캠페인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비주얼 캠페인이다.

### 2)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

선사인 캠페인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책감에서 죄사함으로, 지옥에서 우리의 기업인 천국으로의 전환을 돕는다.<sup>47</sup> 선사인 캠페인은 병영 문화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비추어 짐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빛난 건강한 병영 문화 확립을 돕는 영적 도구가 되고 있다.

### 3) 부정적 기독교 이미지에서 긍정적 기독교 이미지로의 전환

선사인 캠페인은 지금까지 파생되었던 이기적이고 맛 잃은 소금처럼 영향력이 없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고, 기독 장병이 군복무 기간 동안 선사인으로서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병영을

<sup>47</sup>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행 26:18). “to open their eyes and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so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 place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 by faith in me” (NIV). “ἀνοίξαι ὀφθαλμοὺς αὐτῶν ν, τοῦ ἐπιστρέψαι ἀπὸ σκοτοῦ ἐῖς φῶς” καὶ τῇ ἐξουσίᾳ τοῦ Σατανᾶ ἐπὶ τὸν θεόν, τοῦ λαβεῖν αὐτοῦ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ν καὶ κλῆρον ἐν τοῖς ἡγιασμένοις πιστεῖ τῇ ἐμῇ (UBS4)

밝히고, 나아가 전역 후 사회로 나와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교회와 사회를 회복하는 새로운 기독교 이미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sup>48</sup> 선사인 한 사람이 따뜻하고 건강한 병영을 만들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 8. 선사인 캠페인의 발전 방향

### 1) 선사인 캠페인 송 만들기

선사인 캠페인 송을 만들어 반복해서 부르게 함으로, 효과적으로 선사인 캠페인을 1004 군인 교회를 포함하여 국군 장병에게 알린다.

### 2) 선사인 캠페인 홍보 동영상 제작

비전 2020 선교단장 이순귀 권사가 제작한 영상인 Jesus 사랑 흘려보내기, 2012 기독 장병 구국 기도회 파송 영상 피날레 부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2012 기독 장병 구국 기도회 보고 영상 중 “선사인 사역 페스티벌” 등의 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하고,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 3) 선사인 캠페인 성경 공부 교재 활용

건강한 기독 장병 양육을 위한 12주 생활편인 <The 좋은 군사>를 잘

<sup>48</sup> <군선교 신문>, 2012. 6. 30. 3면.

<sup>49</sup> 한국군종목사단, <The 좋은 군사>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2), 192-203.

활용하여<sup>49</sup> 선한 사마리아인의 개념을 계속 숙지하게 하는 것이다.

#### 4) 선사인 캠페인 홍보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 활용

2012년 6월 22일 한국군종목사단 회의 시 선사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현재 제작된 홍보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를 충분히 인쇄하여 홍보에 활용함으로 선사인 캠페인을 알리게 한다.

#### 5) 선사인주일 지속적 시행

2012년 6월 3일에 최초로 지켰던 선사인 주일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1004 교회가 공동체적 책임을 상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6) 선사인 멤버십 운영

2012년 제22회 6·25 상기 기독교 장병 구국성회 시 3,400여 장병이 부대 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선사인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캠페인 동참 희망자는 멤버십 카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며, 상징물로 선사인 배지를 증정하면 좋을 것이다.

#### 7)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례집 발간

선사인 캠페인 실천 모범 장병을 선발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군선교 신문>을 통해 홍보하고,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다.

### 9. 선사인 캠페인의 과제

#### 1)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 연구, 수립, 제시

해군 1함대사령부 정찬수 군종병은 포스터, 전단지, 구국성회를 통하여 선사인 캠페인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무 추상적이라 병영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부분이 있다고 애로 사항을 표현한 바 있다.<sup>50</sup> 또한 그는 군생활을 어려워하는 장병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사인 캠페인을 활성화시킬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수립,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얻게 된다.

#### 2) 기독교 장병과 비기독교인 장병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요망

해병대 연평부대 이구 군종목사의 인터뷰 내용처럼, 선사인 캠페인이 믿지 않은 장병들도 수용 가능한 복음으로 제시되고, 사마리아인도 소외받는 자였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sup>51</sup> 이를 위해 기독교 장병과 비기독교 장병들이 함께 추진하는 선사인 캠페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3)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연합 작전적 열정 필요

선사인 캠페인을 장병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004 군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의 열정이 중요하다. 군종목사와

<sup>50</sup> <군선교 신문>, 2012. 6. 30. 3면.

<sup>51</sup> <군선교 신문>, 2012. 6. 30. 3면.

군선교사 모두가 연합 작전을 수행하듯 열정적인 자세로 선사인 캠페인을 후원 및 실천해야 할 것이다.

##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선사인 캠페인의 정의, 추진 경과 사항, 부대 부적응 장병 식별 방안, 5대 실천 사항, 5대 세부 실천 사항, 실천 사례, 의의, 발전 방향, 과제 등을 연구하였다. 대한민국 국가 공인 엘리트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군대에서 육·해·공군·해병대 1004 군인 교회와 기독 청년들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참 기독 용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사인으로서 병영 내 도움이 필요한 장병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 좋은 군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선사인 5대 세부 실천 사항인 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는 오르고, 전투력도 업그레이드되고, 군기는 살아 있고, 구타 및 폭언, 기수 열외 등 악습은 사라지고, 부대마다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밝고 건강한 국군이 되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 선사인들이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을 바꾸기를 기대한다.

##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진섭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B.S.)

고려신학대학원 (M. Div.)

미국 Covenant신학대학원 (구약학 전공, Th. M.)

미국 Dropsie대학원 (고대근동학 전공, M.A.; Ph. D.)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내용 요약

최석환 박사는 본 논고의 서론에서 군이라는 특수 공동체에서 언제나 예상되는 여러 형태의 사고들(총기, 자살, 구타, 가혹 행위, 언어폭력, 집단 행위)과 악·폐습(기수 열외, 작업 열외, 'PX뺑', '엽문', '악기 테스트', '다리 체모 테이프로 뽑기', '비타민 5-10알 강제 취식' 등)을 척결하고, 관심 병사의 식별과 관리 대책 및 작전 기강을 확립하며, 지휘관 및 주임 원사에 의한 병력 관리,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에 의한 병력 관리, 사고 예방 교육 실시, 비전 캠프 실시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공동으로 2011년 가을에 제

안하고 2012년 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선샤인 캠페인’ (sunshine campaign)을 소개한다.

본론에서 ‘1. 선샤인 캠페인의 정의 2. 추진 경과 사항 3. 부대 부적응 장병 식별 방안 4.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 5. 선샤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 6.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례 7. 선샤인 캠페인의 의의 8. 선샤인 캠페인의 발전 방향 9. 선샤인 캠페인의 과제’를 상론한다. 그 논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선샤인 캠페인의 정의

‘선샤인’은 누가복음 10장 20-37절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병영 문화를 밝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육·해·공군·해병대 1004 군인 교회와 기독 장병들이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부대 사고 예방과 병영 문화 개선에 앞장서자는 기독교 실천 운동이다.

### 2) 추진 경과 사항

첫째로, <군선교 신문>을 통한 홍보로서, ① 2011년 8월 16일자에 캠페인 첫 기사를 낸 후, ② 9월 30일자에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선한 마음, 정확 진단, 응급 조치, 계속 치료, 사후 관리)을 제시하였다. ③ 10월 31일자에 ‘선한 사마리아인식 신앙생활, 군대 내 사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는 기독 장병이 되자!’는 독려와 제11회 한국 교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 개최 예배(10월 13일)에 전한 박종화 목사의 같은 맥락의 설교 전문을 게재하고, ④ 2012년 3월 30일자에 선한 사마리

아인 캠페인의 애칭(선샤인 캠페인)과 슬로건(“당신이 천사입니다”)을 소개하면서 스티커, 휴대용 카드, 전단지, 포스터 등으로 배포함을 보도하였다. ⑤ 4월 30일자에 “6월3일 선샤인(선한 사마리아인) 선포 주일, 1004 군인 교회마다 기도와 홍보와 나눔 실천으로 새 문화를 만들자”라고 보도하고, ⑥ 5월 31일자에서 ‘내가 먼저 선샤인이 되자!’라고 독려하고, ⑦ 6월 30일자는 ‘대한민국 선샤인 서약, 제22회 6·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 대성황, 기독 장병 약 3,400명이 선샤인 실천 서약’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둘째로, ① 10월 4일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1004 군인 교회 캠페인 사역으로 공식 결의한 후, ② 6명으로 구성된 TF팀의 세 차례 회의(2012년 1월 19일, 25일, 3월 26일)를 통해 2월 8일 군종목사 영성수련회 기간 중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의 동기, 목적, 대상, 5대 실천 사항, 5대 세부 실천 사항(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을 제시하고, ③ 3월 28일 한국군종목사단 중앙 위원회와 군선교연합회 정책회의에서 세부 실천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2일 전반기 중단지원회의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신우회 지도 교사 세미나에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세부실천사항을 교육하기로 결의하였다. ④ 6월 3일 선샤인 선포 주일 예배에 육·해·공군·해병대 1004 군인 교회에서 동시에 누가복음 10장 20-37절의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었다. ⑤ 6월 22일, 제22회 6·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 성회 둘째 날 오전 예배 시간에 3,400여 장병이 ‘나는 기독 장병으로서 병영 생활에 힘들어 하는 동료 전우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어 주며 따뜻하고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선샤인) 사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는 좋은 군사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2012. 서약인 ○○○(서명)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귀중’으로 된 선샤인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 3) 부대 부적응 장병 식별 방안

선샤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대 부적응 장병들이 갖고 있는 ‘수면, 식사, 건강, 행동(위축이나 무력, 긴장이나 불안,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비정상적 기괴), 대인 관계 갈등, 휴가나 업무 관련’의 문제점들을 제시한 질문들을 통해 식별한다.

### 4)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

누가복음 10장 33-35절을 근거로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이 제시된다. ① 강도 만난 자를 붙잡히 여기는 ‘선한 마음’ (33절) ②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하는 ‘정확 진단’ (34절) ③ 강도 만난 자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기름과 살균을 위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는 ‘응급 조치’ (34절) ④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돌보는 ‘계속 치료’ (34절) ⑤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을 하면서 계속 돌보아 주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사후 관리’ (35절)

### 5) 선샤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

미국 자살 예방센터(Suicide Prevention Center)의 24시간 위기 전화 네 단계(라포 형성, 정보 수집, 대안 탐구, 마무리) 운영 모델을 중심으로, 최석환 박사는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선한 마음, 정확 진단, 응급 조치, 계속 치료, 사후 관리)을 그가 제안하는 5대 세부 실천 사항과 연결을 시도한다. ① 인사하기(웃으며, 눈 맞추며, 악수하며, 이름 부르며) ② 경청하기(마음으로 공감하며, 귀로 집중하며, 입으로 맞장구치며, 눈으로 행동 관찰하며) ③ 동행하기(예배하며, 기도하며, 운동하며, 놀이하며) ④ 칭찬하기(결과보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적절하

게) ⑤ 선행하기(부대생활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힘든 업무 도와주는, 부적응 장병을 식별하여 지휘 라인으로 보고하는,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제거하는)

### 6)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례

① 23사단 일병 김대진 ② 26사단 상병 구요한 ③ 52사단 상병 심종한

### 7) 선샤인 캠페인의 의의

①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전환 ②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 ③ 부정적 기독교 이미지에서 긍정적 기독교 이미지로의 전환

### 8) 선샤인 캠페인의 발전 방향

① 선샤인 캠페인 송 만들기 ②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선샤인 캠페인 홍보 동영상 제작 ③ 선샤인 캠페인 성경공부 교재(12주 생활편인〈The 좋은 군사〉) 활용 및 발행 ④ 선샤인 캠페인 홍보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 활용 ⑤ 선샤인 주일 지속적 시행 ⑥ 선샤인 멤버십 운영 ⑦ 선샤인 캠페인 실천사례집 발간

### 9) 선샤인 캠페인의 과제

①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 연구, 수립, 제시 ② 기독 장병과 비기독교인 장병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요망 ③ 군종목사와 군 선교사의 연합 작업적 열정 필요



## 2. 논평

### 1) 훌륭한 점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 약 4,500교회가 동참하여 군대 내 모든 부대의 1004개 처소에 진중(陣中) 교회가 세워졌고, 군대를 통해 매년 20만 명이란 군인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대대 수준에서 세례 교인을 효율적으로 양육하여 제대 후 민간 교회로 연결할 수 있다면, 2020년에는 전 국민의 75%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류 역사 초유의 기적을 통해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군 선교 ‘비전 2020 실천 운동’의 비전과 사명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군선교는 이 시대 세계 최대의 영적 추수밭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비전과 사명이 달려 있는 황금어장임에 틀림없다. 황금만능과 쾌락과 종교 다원화의 쓰나미 속에서 노방 전도, 학원 선교, 산업 선교 등이 한계에 봉착한 오늘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국내 선교, 그것도 청년 선교의 유일한 돌파구로서 지금까지 누렸던 군선교의 호황 조건과는 달리 10년 내에 군 징집 인원 감소, 예상보다 지원병제의 조기 가시화 등의 큰 변화로 인해, 집단적인 종교 행사(세례 등)는 물론 공식적, 비공식적인 군부대 안에서의 선교 행위 자체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2020년까지란 하나님 주신 마지막 호기임을 명심하게 된다.

1996년부터 추진해 온 군선교 ‘비전 2020 실천 운동’이 계획한 세례, 양육, 배출이 세월이 지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차질을 빚으며 담보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만일 군선교가 한국 교회 미래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기독교계가 범 군·민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보다 발전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군선교 전략이 범기독교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당위성은 더욱 증대되어 온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군종목사단 선사인 캠페인 TF팀장으로서 이 캠페인의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있는 최석환 박사의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는 여러 형태의 기존한 병영 사고에 대처한 ‘병영 문화 혁신’의 구체적 해법 제시는 물론, 더 포괄적인 의미의 군선교 전략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고무적인 논고로 치하할 수 있겠다.

먼저 이 캠페인의 명칭인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 10장 33-35절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놓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병영 문화를 밝게 비추는 그분의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캠페인을 강조함으로써, 종교 다원주의 세태 속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장점을 시위한다.

같은 맥락에서 선사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 역시 본문 석의를 통하여, ① 강도 만난 자를 붙잡히 여기는 ‘선한 마음’ (33절), ②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하는 ‘정확 진단’ (34절), ③ 강도 만난 자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기름과 살균을 위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는 ‘응급 조치’ (34절), ④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돌보는 ‘계속 치료’ (34절), ⑤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을 하면서 계속 돌보아 주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사후 관리’ (35절)로 규명한 것은 탁월한 해석적 적용이다.

선사인 캠페인의 대상인 부대 부적응 장병들이 갖고 있는 ‘수면, 식사, 건강, 행동(위축이나 무력, 긴장이나 불안,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비정상적 기괴), 대인 관계 갈등, 휴가나 업무 관련’의 문제점들을 식별하는 질문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논고자가 2008년 9-11월에 미국 자살예방센터

(SPC)의 해외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4단계 위기 전화 모델’을 적용하여, ① 인사하기(웃으며, 눈 맞추며, 악수하며, 이름 부르며) ② 경청하기(마음으로 공감하며, 귀로 집중하며, 입으로 맞장구치며, 눈으로 행동 관찰하며) ③ 동행하기(예배하며, 기도하며, 운동하며, 놀이하며) ④ 칭찬하기(결과보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적절하게) ⑤ 선행하기(부대생활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힘든 업무 도와주는, 부정적 장벽을 식별하여 지휘라인으로 보고하는,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제거하는)를 선사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으로 제안한 것은, 이 논고의 백미로 추천할 만하다.

비록 3개의 소수이지만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이 캠페인의 의의를 3가지로 간략히 정리한 후, 발전 방향에 대해 7가지 제안과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한 것은 본 논고의 실천적 논의를 확장하여 진행하는 데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 2) 건의할 점

앞서 언급한 훌륭한 점들을 좀 더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논평자의 건의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선사인 캠페인’의 태동 과정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본 논고는 바로 ‘추진 경과 사항’으로 접근하고 있는 바, 이 훌륭한 캠페인의 아이디어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출발점을 알 길이 없다. 특별히 본 논고자가 이 캠페인에 처음부터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궁금하다. 앞으로 《군선교 신학》제 10권에 게재할 때 이 부분이 역사적 자료로서 충분히 제공되었으면 한다.

(2) ‘선사인 선포 주일’ (2012년 6월 3일)에 누가복음 10장 20-37절의 동

일한 본문으로 1004 군인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런 경우 한국군 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등의 도움을 받아 ‘모범적 공동 설교문’을 몇 개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면 보다 더 신학적으로 검증되고 통일된 한목소리를 내는 데 유익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3) 누가복음 10장 20-37절에서 추출한 ‘5대 실천 사항’은 선사인 캠페인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들의 협조를 받아 매뉴얼화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는 마태복음 25장 31-46절의 6대 ‘궁휼 사역’ (Mercy Ministry)을 실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 윤리적 책임과 관련된 신구약성경 전체의 조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sup>1</sup>

(4) 선사인 캠페인 ‘실천 사례’는 가장 생동감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범주에 따른 ‘사례 모음란’을 신설하거나, 1980년대에 풍미한 ‘간증 문학’의 형태로 우수한 사례들을 표상하거나 소책자화하는 것을 제안하며, ‘발전 방향’과 관계하여 한국 교회의 교단별 ‘군선교 담당’ 기구나 담당자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함과 한국의 신학적인 학회들과 신학대학원, 상담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연구, 발표, 동역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으면 한다.

(5) 논고자가 잘 의식하고 지적한 대로, ①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의 연구, 수립, 제시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② 기독 장병과 비기독교인 장병

<sup>1</sup> 이 주제의 필독서인 Christopher J. 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Nottingham: IVP, 2004) = 김재영,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서울: IVP, 2006); Christopher J. H. Wright, *Mission of God* (Nottingham: IVP, 2006) = 정옥배 · 한화룡, 《하나님의 선교》(서울: IVP, 2010), 449-498(“11장.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삶”).

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요망, ③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연합 작전적 열정, 필요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전략들을 기대하게 된다.

최석환 박사가 마무리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육·해·공군·해병대 1004 군인 교회와 기독교 청년들이 신행일치의 선샤인으로서, 병영 내 도움이 필요한 장병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 좋은 군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한다. 특히 선샤인 5대 세부 실천 사항인 ‘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향상되고, 구타 및 폭언, 기수 열외 등 악습은 사라지고, 부대마다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밝고 건강한 국군이 되기를 함께 소망한다. 더 나아가, 국군 선샤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대한민국까지도 바꿀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탁월한 논문으로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를 제공한 최석환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 광야-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

(시편 23편 1-6절)

■ 강사문

- 서울장신대학교 석좌교수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야전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서 다윗 왕이 고백한 시편 23편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셨다는 다윗의 구원의 확신은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용기를 줄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는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 왕의 신앙고백인 시편 23편 1-6절의 삶의 자리와 신앙적 고백을 음미해 보려 한다.

### 1. 시편 23편의 삶의 자리

- 1) 시편 23편의 삶의 자리의 전 이해로서 광야 사막<sup>1)</sup>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래 사람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는 존재, 즉 아담은 아다마(땅)에서 와서 아다마로 가는(창 3:19)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가 나서 살던 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땅(신 11:10-12)에서 왔느냐에 따라 생사관(生死觀)이 결정된다. 이는 광야 사막의 약속의 땅과 애굽 땅의 대조에서 잘 증명된다(신 11:10-12). 따라서 구약에 나타난 신앙은 사막에서 나온 신앙 체계이다. 구약 인물들의 신앙은 사막에서 생성된 신앙이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토양에서 모세, 바울과 예수님 같은 신앙인들이 나왔고, 그리스 땅에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인들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스라엘 땅의 크기는 남북의 길이가 약 400km이고, 동서의 길이가 약 100km의 넓이로, 현재 점령 지역을 빼면 20,232km<sup>2</sup>이다(전라남북도의 넓이 20,240km<sup>2</sup>와 유사하다). 따라서 23편 시편의 말씀도 철저하게 광야 사막이라는 실제적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다윗의 신앙고백이다.

## 2) 약속의 땅으로서 광야-사막

광야 사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광야-사막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막들 중에 가장 큰 광야-사막은 시내 반도이다. 시내 반도의 크기는 동쪽과 서쪽 한 변이 약 320km의 삼각형 지대로, 약 7만km<sup>2</sup>이다.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물이 남에서 북서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들어간다.

북쪽 해안 연안 지역은 모래언덕이 32km 연속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성경의 수르 곧 에담 광야가 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언급된 ‘블레

셋 땅으로 가는 길, 해변 길’이 이 지역에 있다. 곧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언급된 대로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에 이르러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을 못 얻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중앙 지점은 석회암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티 사막이 있고 동쪽 끝에는 바란 광야와 친 광야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민 34:3)은 신(친) 광야를 지나 가데스와 남방에 이르고, 거기(민 32:51) 신(친) 광야 가데스의 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반역했던 곳이고, 이곳은(수 15:1) 또 유다 지파의 극남단 지역으로 에돔과 접경이고, 남으로는 이스마엘이 신(친) 광야 곧 바란 광야에 거했던 곳이고(창 21:21),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던 곳이다(삼상 25:1).

남쪽은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위쪽으로 시내 광야가 이곳에 위치한다. 인구 조사를 한 곳이 이곳이고(민 1:19), 제3월 즉 출애굽 후 50일이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 곧 시내 광야에 도착한다(출 19:1-2).

## 3)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였던 시내 반도에 있는 5개의 사막들과 그 특징

### (1) 에담 광야(애굽 호칭 : 방어벽)/수르 광야(히브리어 명칭 성벽)

홍해 연변에 접하고 있는 풀이 없고 모래만 쌓인 넓은 벌판이다(출 13:20, 15:22; 민 33:6-9). 수르 광야는 홍해를 건넌 후 도착한 첫 번째 광야이다.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갈이 머물렀던 곳이다(창 16:7-14).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체험하는 곳이다. 그 광야 한 곳에 있는 마라라는 곳은 물은 있으나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었다.

인생 행로에서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첫 광야 학교이다. 이곳은 요셉의 고통과도 유비된다. 종으로 팔린 요셉이 그 밭에 차꼬를 차고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시 105:17-19).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형제

<sup>1</sup> 사막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책이 유용하다. Nogah Hareuveni, *Desert and Shepherd in Our Biblical Heritage* (Neot Kedumim, 1991).

들을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았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쓰디쓴 물이 있는 수르 광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훈련받아 후에 감옥은 총리가 되는 통로가 되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처럼 수르는 여호와에 의해 치료받던 곳이다. 약 8-27m의 모래 언덕이 32km에 걸쳐 있으며, 어떤 지역엔 소금기 있는 우물과 종려나무가 자라는 지역으로 구성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기까지 40년간 체험한다(출 16:18; 고후 8:15).

#### (2) 신 광야(Sin)

신 광야는 홍해 연변에서부터 시작하여 양편에 작은 산들이 보이는 골짜기로 전개되는 광야이다.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광야다(출 16:1 이하).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이 신 광야이다. 이 곳 역시 광야의 연속이라 배고픔과 굶주림에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자 생존과 직결된 불평에는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 만나와 메추리기를 보내어 생존 문제를 해결하신다. 즉 하나님은 공급자(provider)임을 알게 된다. 신 광야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신 8:3; 마 4:4).

#### (3) 시내 광야

시내 산 근처의 광야로 산과 함께 있는 골짜기 사막이다(출 19:1-2; 레 7:38; 민 1:1). 모세 일행이 출애굽한 후 50일쯤에 도착한 곳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로 알려진다. 출애굽 후 50여 일 만에 도착한 곳이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수여된다. 곧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오순절의 역사의 기원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

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과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4) 바란 광야(Paran)

티 사막 동쪽에 있는 광야로, 해발 600-700m의 돌출된 산악 지역의 사막이며 또 산에 굴이 많은 지역이다(창 21:21; 민 12:16, 13:3; 삼상 25:1). 모세와 그의 일행이 시내 산에서 1년 정도 지난 후 그 곳을 떠나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이다.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고조되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훈련시켰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을 취했다. 계속해서 조건이 나빠지고 어려워지자 백성들의 불평은 고조되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여기서는 생존 조건보다는 좀 더 편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과 타인에게 돌리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곳이 바란 광야이다.

(5) 진(Zin) 광야(한글개역개정에도 신 광야로 번역되었으나, 진 광야로 번역함이 타당하다. (2)번의 신 광야와 글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데스바네아 근처에 있는 광야이며 하갈의 삶의 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도 연계된다. 이곳은 창 20:1, 25:11; 민 13:21, 20:1, 27:14, 33:36 등에 언급된다. 가데스바네아를 포함한 아라바 광야의 남단에 속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훈련받던 곳이 진 광야이다. 여기서는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다. 성화의 길 마지막 단계로 본다. 여기서 직접 요단 동편으로 못 가고 다시 홍해 길로 내려가서 에돔을 경유

한다.

위의 5개의 광야-사막들은 시내 반도 내에 있는 광야 사막들이다. 하지만 가나안 땅 내에 있는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세레자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에 자주 언급되는 곳이다.

#### (6) 유대 광야

세레자 요한이 복음전파하던 곳,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시험받으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곳이다(막 1:1 이하; 마 4:1 이하). 가톨릭 성경인 불가타를 번역한 제롬도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3년간 유대 광야에서 훈련받고 주후 398년에 라틴어 성경 번역(Vulgate)을 완성했다. 비잔틴 시대에는 이곳에 100개의 수도원이 있어 영성 훈련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 4) 광야-사막의 신학적 구조

(1) 광야-사막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 은혜로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 받은 바, 즉 출애굽 구원(Justification)이 주어진 곳이다(출 1-18장).

(2) 율법 수여와 준수로서의 구원에 이름: 성화의 단계(Santification-레위기).

(3) 미래에 완성으로서의 구원: 영화의 단계(Glorification-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 5) 광야-사막이 주는 신앙적인 교훈

이곳은 위험한 곳이다. 물과 식물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존했다는 신앙을 체험한 곳이다.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체류시킨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에 목적이 있다.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태도를 배운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배운다.

삶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삶을 배우는 데 의의가 있다. 사람은 조건이 좋으면 기뻐하나, 조건이 나빠지고 악화될 때에는 불평한다. 원망과 불평에는 두 유형이 있다.

첫째,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 이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벌과 심판이 수행되지 않는다.

둘째, 욕심과 불신에서 과생되는 원망과 불평.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명령을 따른 자들은 광야에서도 살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1) 사막의 지혜(사막 교부들의 말씀).<sup>2</sup>

사막에는 양면성이 있다.

① 광야: 자신과의 투쟁. 욕망, 분노, 불평과 고독 같은 사막의 사탄과 싸우는 일.

② 낙원: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일. 신앙적 인간으로 성숙함. 장작 불을 피우듯이 눈물 흘리며 거룩한 영혼의 불을 피워야 한다.

사막은 개인 구원과 공동체 구원의 훈련소다. 금식은 개인 구원의 범주이고, 봉사는 공동체 구원의 범주다.<sup>3</sup>

### 6) 광야 교회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신자들

첫째, 두 종류의 애굽 신자가 있는데, 애굽 신자는 교회에 등록하고 예

<sup>2</sup> 《분도소책 26》, 분도출판사, 1988.

배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상태이다(고전 2:14).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이다. 애굽에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이 있었던 것처럼 영생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행 13:48).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벧전 2:2). 다른 애굽 신자는 곧 애굽인과 같은 자로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는 자이다(마 7:22). 이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딤후 3:5) 자들과 같다.

둘째, 두 종류의 광야 신자가 있는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수의 손(눅 1:74), 곧 마귀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을 얻었지만 마음속의 애굽의 습관을 벗지 못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다(고전 3:1). 세상과 반복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자이다(삿 3:12). 두 마음을 품고 고민하고 갈등하며(롬 7장의 상태), 생활 염려로 자주 시험 들고, 믿음이 자주 흔들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과 주장과 계획과 감정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헌

신하지 못하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려 들지 않는 자이다. 광야에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시기 분쟁하며, 생활의 문제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인들과 같다(고전 3:3). 다른 한 부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환경에서도 가나안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자들이다.

셋째, 두 종류의 가나안 땅의 신자가 있는데, 가나안은 이 지상에서 향유하는 심령 천국의 모형이다. 가나안 신앙은 죄의 장소인 마음과 영이 깨끗해진 성결의 은혜를 받아 죄와 세상에서 완전 성별(겔 18:30-32), 곧 모든 죄악에서 떠난 자로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들이다(고전 2:15). 경건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들이다. 가나안에서도 내적인 적과 싸움을 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도 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인을 살려두고 짝한 자들이 있었고, 갈렙처럼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신 1:36). 이처럼 가나안 신앙에도 완전 순종하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하고 혼란받지 못하여, 자주 성결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잃고(계 2:4) 쉽게 성령 충만을 잃는 자들이 있고, 에녹, 엘리야, 여호수아, 갈렙, 성령 충만받은 예수님 제자들, 바울과 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엡 6:24) 순교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sup>4</sup>

## 7) 광야-사막에서는 인간이 끝없는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건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하고,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싶어 하며, 더 크고

<sup>3</sup> 사막의 수도 생활에 관한 이런 일화가 전해온다. “수도자의 옷은 3일간 밖에 내버려두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그때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기도 중에 조는 사람을 꼬집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수도자는 말하기를, ‘그때 너는 내 무릎을 베고 자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 수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을 다무시오. 그리고 자신을 남들과 비교 평가하지 마세요.’ 사탄이 수도자에게 길을 막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금식, 기도, 봉사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고 했다. ‘그것이 무엇이요’ 라고 수도자가 물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당신의 겸손’ 이라고 한다. 7주간 금식했으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암자에서 나와 친구를 찾아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겸손한 수사. 나무를 심고 수도자에게 물을 주라고 한다. 그래서 수도자는 밤새 걸어가서 물을 길어 새벽에 와 물을 3년간 주었다. 3년 후 맺은 열매를 가지고 교우들에게 ‘이는 순종의 열매이니 받아 드세요’ 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수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문하고,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신이 됩니다. 수신제가(修身齊家)해야 목회하죠. 그래야 평천하(平天下)하지요.’”

<sup>4</sup> 왕평, 《하늘에 속한 8가지 행복》(서울: 쿤란출판사, 2005), 74-79.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더 예뻐지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평생 만족이 없다.

미국의 한 유명 신문에 특이한 광고가 났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다. “만일 참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가 10만 불(약 1억 원)을 줍니다.”

이 광고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낸 사람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서로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심사 결과 그들 중 한 사람도 그 광고주로부터 10만 불을 받아 간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광고주가 던지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겠는가?

“당신이 참으로 만족한다면 왜 당신에게 10만 불의 돈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돈에 욕심이란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거짓말한 것이 탄로난 셈이다.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불만이 늘어나고, 가난할수록 만족도가 높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친척도 친구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기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버스 운전사, 비행기 조종사, 택시 기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잠을 자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가? 그래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이다.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듯이,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만족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오는 것이다.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울 사도에게서 봉사하는 비결을 배워 평생 자족하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설삼용 목사).

## 8)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기쁨과 행복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로 연주하고 감격과 감동이 벅차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높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였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들 안에 애굽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신 10:13)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땅이었다. 광야 학교를 거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 9)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약속의 땅인 광야-사막의 신학적 의미

아담은 ‘아다마’에서 유래된다고 한다. 즉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의미다. 지질학자에 의하면 사람이 소고기 1파운드를 먹으면 그중에 2-3%는 철분(F)이므로 2-3% 바위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인한 전쟁과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얻은 교훈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운명을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해석했다.

오히려 비극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다(시 13편).

고(苦)에 대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 새로운 이해를 했다. ① 고난은 의인들의 대속적 희생이다. ②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의 반영이다.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③ 고난은 하나님 역사의 한쪽 수레바퀴이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부활이 없다. ④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이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강자의 발언은 항상 정의이다. 또 적의 적은 친구다.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국가 이익이 영원할 뿐이다. 사람은 죄를 나누어 연합하고 이익을 다투어 분열한다. 우리의 경우 식민사관과 중화사관에서 갈등했다.

위에서 언급한 광야-사막의 신학적 삶의 자리와 신앙을 이해한 후에 다윗이 고백한 신앙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고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다윗의 시편 23편의 구조와 주제

### 1) 본 시편의 구조

본 시편은 두 구조로 구성된다.

1-4절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목자로 고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서움이 없이 그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5-6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집에 환대함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 (1) 목자이신 여호와께의 보호와 평안

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

대기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이다.

(2) 여호와께의 집에 환대를 찬양함(5-6절).

(3) 주께서 나의 원수들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4)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겠습니다. 1-3,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3인칭으로 묘사되고, 4-5절에서는 2인칭으로 호칭하며, 시제는 미완료형으로 과거를 넘어선 감사의 표현이다. 1절은 총 주제이고, 2-3절의 내용은 6절 하반절에 요약된다. 즉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영혼의 소생, 의의 평탄한 길은 여호와께의 집으로 함축된다. 4-5절은 6절 상반절에 요약된다. 즉 사망의 골짜기에서의 위험한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잔칫상의 초대, 평생토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의 은총과 구원의 삶으로 요약된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이란 사막에서라도 은총과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목가적 신뢰의 시이다.

### 2) 시편 저자의 신앙적인 표현=목자와 양

하나님은 목자이고 시인 자신은 양으로 비유하는 목가적 신뢰의 시이다. 대개는 하나님이 목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으로 비유된다(시 74:1, 80:1, 95:7, 100:3 등).

1절에 사막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흐사르)은 낙원의 다복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이다.

#### (1) 목자란 누구인가?

성경에서 먼저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시 23:1, 78:52, 53; 암 3:12; 마 25:32)을 지칭한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 ‘로에’라는 목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분을 지칭한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양을 지켜 보호해 주는 자처럼, 하나님은 위험한 곳에서도 보호하고 길을 인도해 주는 분임을 고백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안전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벨도 본래 직업이 목자였다(창 4:2).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서 인도해 낸 목자였다(출 3:1). 여호수아 역시 목자였고(민 27:16-23), 다윗 왕(삼상 16:11)과 고레스도 목자(사 44:28)로서 민족과 역사를 인도한 자이다. 신약에서는 목자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된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로 묘사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2) 목자의 임무

가. 인도자-렘 50:17; 겔 34:6; 마 9:36, 10:6, 15:24; 대상 4:39-41; 벧전 2:25.

2·3절은 주로 인도의 주제를 다룬다. 2절의 נָחַל(나할), 3절의 נָחַם(나함)은 출애굽 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쓰던 단어이다. 출애굽 구원과 광야 인도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역사 신앙에 기초한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 신앙의 기반(The bedrock of Israel's Faith)에 서 있다고 하겠다.<sup>5</sup>

나. 보호자-삼상 17:34-36.

사막의 위험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것이다. 보호자로서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상적인 왕으로 또 지도자로 인식된다.

다. 공급자-창 29:2-9.

양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물이 있는 샘으로 인도하여 생존의 요소들을 공급한다. 우리의 생존을 지속하게 해주는 자가 목자란 뜻이다.

라. 이상적인 지도자-왕

다윗이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였고, 바사의 고레스는 세계와 역사의 흐름을 통제하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23: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요 10:11).

## (3) 각 구조에 대한 주해

가. 1절, 총 주제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아쉬움이 없도다).

사해 북쪽 끝 유대 광야의 일부와 건너편 요단 동편 사막은 지금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시인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 “……내가(하나님) 너(이스라엘 백성)를 기억하노니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렘 2:2). 다윗은 본래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삼상 17:28). 광야-사막이 곧 목초지(pasturland)이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 간 마온 광야-사막-헤브론 동쪽(삼상 23:19, 24-29)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면, 레갑 사람들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고 한다.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마 6:28)는 말씀은 의식주에 대해 근심과 걱정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뜻이다.

아가서 5장 13절에 입술은 백합화(שִׁשְׁבִּיל, Anemone caronaria)라고 하는데, 여기 수산나가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로 번역되는데 이 꽃은 빨간색

<sup>5</sup> 김이곤, <숨 쉬는 사람마다 여호와의 찬양하라>, 한국성서학연구소 자료집, 95.

꽃이다. 빨간 젊은 여인의 입술을 상기하는데 하얀 백화화로 번역됨에 따라 노인 할머니를 연상케 된다.

나.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렘 31: 24-25).

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sup>6</sup>

라. 4-6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은 죽음의 골짜기란 말이다. ‘베케 찰마베트’란 말은 최상의 어둠, 전적 흑암이란 의미로, 예레미야 2장 6절이나 욥기 10장 21-22절에서 죽음의 위협을 표현할 때 쓰인 용어이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런 위협이 해소되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이런 신앙고백은 이사야 7장 14절의 전쟁의 위기를 극복한 임마누엘 신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평화로운 삶에 대한 절대 확신에 찬 신앙고백시이다.

### 3. 시편 23편의 신앙적 결론

여호와와 위험과 죽음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를 증언하는 시이다. 하나님의 목자상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30절, 요한계시록 5장 1-14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재현된다. 그러나 구약의 목자상은 희생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으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희생의 목자상이 특징이다.

<sup>6</sup> ‘목자를 따라 양들이 다니는 양의 길’, ‘잃은 양의 비유(눅 15:4-7), 목자 없는 양의 비유(마 9:36)’, ‘하나님과 동행하던 유대 광야’와 같은 모티프가 투사되어 있음.

##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독일 München 대학 법학박사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검찰 개혁 자문위원장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총체적 형법학 잡지(ZStW) 외국 편집자문위원



### 1. 들어가는 글

최근 각종 흉악범죄와 ‘묻지마’ 살상범죄가 빈발하자 사회가 온통 불안과 분노와 격앙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정부는 경찰의 순찰인력을 증강하고 감시카메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진열장 속에 넣어 두었던 불심검문을 활성화하고, 성폭력범죄 전담반을 가

동시켰다. 몇몇 언론은 지난 15년간 녹슨 채 방치해 두었던 사형집행을 다시 손질하여 극형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드높인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30여 년간 형법을 연구해 온 필자 자신도 과연 죄와 벌, 범죄와 형벌은 무엇이며, 인간에게 이들 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반복되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길을 찾기 위해 필자는 ‘되찾은 아들 비유’(눅 15:11-32)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 비유를 통해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풍부한 의미들 속에서 죄와 벌의 근본문제에 대한 길찾기도 숨겨져 있으리라는 예감을 가지고, 길을 더듬어 찾아나서 보고자 한다.

### 2. 인간상(人間像)의 정립문제

형법질서에서 죄와 벌의 의미는 인간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일찍이 라트브루흐(Radbruch)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상의 변화가 법의 역사에서 신기원을 만든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과 그 죄값을 묻는 형벌의 의미와 기능을 규명하려면 이 시대 우리의 생활세계, 사회의식 속에 각인된 인간상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 내 존재(In-der-Welt-sein)<sup>1</sup>로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자기존재(Selbstsein)임과 동시에 더불어 사는 존재(Mitsein)이다. 자기존재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계 내에서 각각 유일한 인격으로서 스스로 생활세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한다. 인간은 내면을 향한 성찰을 통해 세계를 자신의 중심 속으로 내면화시킬 뿐만 아

<sup>1</sup>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존재의 규명에 관하여는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이기상 역), 1997, 80면 이하 참조.

나라, 외부세계로 향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 자기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 세계 내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로서 특정한 개인, 개별인격으로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이 같은 개별존재(Individualsein)로서의 자기존재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처분될 수 없으며,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단지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처분이 가능하다.<sup>2</sup>

인격으로서 인간은 자기존재의 발현행태이므로 각자 인격적 독립성을 표현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인격은 고유성, 독창성, 비교환성, 비대체성, 불가처분성을 지닌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립된 개인일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인 인격적 존재이다.<sup>3</sup>

인간의 자기존재성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일면이라면 다른 일면은 더불어 사는 존재, 즉 다시 말하면 사회존재성(Sozialsein)이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잠재적·현실적 본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자기 존재만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sup>4</sup>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자기 실현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연적·사회적 환경과의 끊임없는 교동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공존적인 삶을 통해서만 개별존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개별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sup>5</sup>

정신사적으로 볼 때, 관념주의적 인간상은 인간을 단지 ‘추상적 주체’ 또는 ‘고립된 개인’으로만 파악한다. 이러한 인간상은 19세기에 등장한

유물론과 실존주의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sup>6</sup> 유물론과 실존주의는 더 이상 인간을 ‘정치적 동물’ (Aristotle)이나 ‘이성적 인간과 경험적 인간’ (Kant)과 같이 추상적·관념적 형식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물론과 실존주의의 인간상은 ‘사회관계의 총체’ (Marx), ‘생활관계의 총화’ (Sartre)와 같이 정의된다.<sup>7</sup>

더 나아가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세계내적 존재이며, 이를 근거짓는 이중의 관계 속에서 자연관계적 인간(Natur-Mensch)과 인간관계적 인간(Menschen-Mensch)의 모습으로 실존한다. 따라서 현실적 인간은 세계 내에서 인간 이외의 존재자인 자연 및 자기 이외의 존재자인 타인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 살고 있다.<sup>8</sup>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계를 자연세계(Naturwelt) 또는 환경(Umwelt)이라 하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세계를 인간세계(Menschenwelt) 또는 사회(Mitwelt)라 한다.

자연관계적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내의 사물들은 인간실존에 필요한 자연환경으로서 존재필연적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보존과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이에 비해 인간관계적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현 존재는 현실적으로 타인 없이는 자신의 인간 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신 없이는 타인의 인간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공존자이다. 인간존재에서 타인은 자기실현을 위한 존재필연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공존자의 광장이 이른바 사회이며, 인간은 사회 속에서 주체의 객관화에 의해 타인 중의 한 사람으로 사회화됨과 동시에 객체의 주관화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개별화된다. 무엇보다도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대

<sup>2</sup> 마이호퍼,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심재우 역), 1994, 24.

<sup>3</sup>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2012, 112 이하 참조.

<sup>4</sup> 하이데거(Heidegger)의 ‘현존재의 기초분석’에 나타난 자기존재 가능성의 결핍과 망각, 그리고 비본래성으로의 추락에 관하여는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이기상 역), 240면 이하 참조.

<sup>5</sup> Muller,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1974, 119.

<sup>6</sup> Maihofer, *Menschenbild und Strafrechtsreform*, 1964, 9.

<sup>7</sup> Il-Su Kim,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im Strefrecht*, 1983, 70.

<sup>8</sup> Maihofer, *Konkrete Existenz*, Wolf-FS, 1962, 264.

화적 존재이므로, 더불어 사는 타인과의 관계는 인격성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고립된 개인은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일 수 없다. 법에서 인간은 더 이상 로빈슨 크루소나 하와 이전의 에덴에 홀로 거닐던 아담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 인간이다.<sup>9</sup> 이를테면 아내와 남편, 아들과 아버지, 소송의뢰인과 소송대리인 같은 대자관계(對者關係) 또는 특정직업종사자·신분자와 같은 향자관계(向者關係) 속에서 인간은 각각 주체와 객체, 객체와 주체로서 서로를 주고받으며 전인(全人)적 인간을 형성해 나간다.<sup>10</sup> 그러므로 인격으로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도 타인과 존재필연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sup>11</sup> 그것은 존재필연적으로 사랑의 관계이다.

인격으로서 인간을 형성하는 육체·정신·영혼과 같은 본질적 요소는 전인(全人)을 바라보는 준거점으로서 작용하지만, 그것을 각각 인간으로부터 분해할 수는 없다.<sup>12</sup>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인간존재에 해석학적으로 접근하자면 무엇보다도 인간을 정신적 존재(Geisteswesen)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이 정신적 의식활동을 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점이다.<sup>13</sup> 여기에서 정신이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존재구조에 대해서 일종의 본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형성하는 고유한 존재구조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물은 본능과 환경에 속박되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인간은 정신능력으로 인

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세계를 향하여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개방된 존재이다.

또한 정신은 존재를 존재로서, 가치를 가치로서 체득할 수 있고, 의식적인 자아의 결정을 가능케 하는 인간고유의 특별한 능력이다.<sup>14</sup> 이는 정신이 체험의 충족인 의식 및 자유, 가치인식, 책임있는 자기결정을 위하여 충분히 깨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인 자유 안에서 행위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유독 인간만이 자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의 정신은 일체의 의미전달과 관계형성에 대해서 능동적·구성적·창조적이다. 또한 정신은 추상적·독백적 존재가 아닌 대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파악하여 스스로를 개방할 수 있는 본체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은 정신활동에 의해 고립된 개인으로부터 관계로서의 인격(Person als Relation)이 된다.<sup>15</sup> 전체 인류도 각 인종의 다양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무와 책임을 나누어 지는 하나의 가족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이 정신의 최고단계를 넘어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영적 존재이다. 그의 영적 능력을 통해 인간은 초월자인 신과 교통할 수 있으며, 신의 소명자 내지 사명자로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신의 분부를 좇아 신의 의지를 구현할 수 있다.

반면에 인간의 정신능력·영적 능력에는 많은 실패와 파행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은 바로 이 능력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개방성의 한계에 직면해서도 자기실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발전

<sup>9</sup> Radbruch, *Der Mensch im Recht*, 1957, 9.

<sup>10</sup> Buber, *Das Problem des Menschen*, 4. Aufl., 1971, 165.

<sup>11</sup> v. Wiese, *Der Mensch als Mitmensch*, 1964, S.7;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2 (1948), 270f.

<sup>12</sup>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유호준 역), 1999, 348.

<sup>13</sup> Scheler,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Kosmos*, 4. Aufl., 1962, 34.

<sup>14</sup> Wenzl, *Philosophie der Freiheit*, 1947, 171f.

<sup>15</sup> Arth, Kaufmann, *Rechtsphilosophie in der Nach-Neuziet*, 1990, 40.

<sup>16</sup> Schuler, *Die Verantwortung*, 1948, 57.

시켜 나가게 되는 것도 인간의 이런 능력 때문이다.<sup>17</sup>

결론적으로 죄와 벌을 둘러싼 형법질서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구체적 · 현실적인 전인(全人)으로서의 인간이다. 이러한 현실적 인간상은 육체 · 정신 · 영혼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지닌 인간이 정신적 · 윤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과 환경을 책임있게 형성할 수 있는 소질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중시한다. 현실적 인간은 인간존재에 고유한 개별성과 사회성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존재이다. 비록 역사적 · 현실적 삶 속에서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자유와 책임, 양심과 긴장 속에서 인격성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 창조적 모험을 하는 것이 현실적 인간인 것이다. 형법은 이러한 인간상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전인적 인격의 발현 내지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죄 및 그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제재를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3.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죄와 벌의 문제

#### 1) 문제 제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통 신앙인들은 먼저 윤리적인 안경을 끼고, 윤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쉽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이를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 신세가 된 둘째 아들의 건달 행세를 죄로 규정지으려 한다. 그의 인격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기심, 방종과 일탈, 쾌락추구 등이 이 죄의 뭉치 속에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방탕생활에서 귀환한 둘째 아들이 자기 입

으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점에서 이 같은 이해는 큰 착시에 빠진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고백을 잠깐 뒤로 제쳐놓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둘째 아들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둘째 아들을 죄인이라고 단정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물론 둘째 아들은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요구를 너그럽이 받아들여 통 크게 두 아들에게 각각 떼어 주었다. 이제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하는가는 아버지의 영향권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달렸다.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어떤 주인처럼 그것을 후에 계산할 요량으로 유보조건부로 재산의 관리를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산의 탕진을 죄로 읽는 사람들의 뇌리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신성시하는 문화전통의 선이해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산에서 이미 나누어진 몫은 신성성의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의 문제가 된다. 현실의 세계로 한번 열린 문은 다시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열 수도 없다. 떼어준 몫은 이미 열린 문의 문지방을 넘어섰고 다시 되돌아 올 수 없다. 회년에 되물리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 아니다. 분명한 점은 둘째 아들의 몫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처분권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을 죄로 읽는 사람들의 관성에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불효가 선이해에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일견 일리가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제5계명은 “그러나 제5계명은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귀결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보면 부모를 두고 떠나가 버린 것이 바로 죄로 연결되는지는 의문이다.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신 21:18-21)과 같은 구체적인 율례가 그 점을 암시한다. 이 경우 야곱의 예를 참고할 만하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곁을 도망쳐 나

<sup>17</sup> Portmann, *Zoologie und das neue Bild des Menschen*, 1951, 67.

와 먼 곳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아픔을 불효막심한 죄인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나님은 이 불효자가 죄의 회개는커녕 죄를 의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를 인도하고 감찰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의 귀환사건에서 보여주는 죄의 진정한 의미는 도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귀환자의 자기고백이 단지 아버지의 귀를 임시변통으로 즐겁게 하기 위한 교언영색이란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에 숨겨진 죄의 베일을 벗겨서 무엇이 심각한 죄이며, 귀환자의 자기고백이 어떻게 진정한 죄의 회개에 해당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 2) 죄의 연원

까닭없는 죄는 없다. 범인이 무슨 동기로 죄를 저질렀는지를 밝히는 데는 단순히 형벌의 크기와 정도를 양정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다. 오늘날 형법상의 범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내면의 행위의사보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바 사회에 미친 유해한 결과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즉, 행위반가치보다 결과반가치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결과적 측면보다 행위자가 지닌 내심의 작용과 그 의지의 빛나간 방향에 중점을 둔다. 살인이라는 행위결과보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분해서 욕설을 퍼붓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자와 같다는 것이다(마 5:21-22). 또한 간음이라는 행위결과가 아니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죄를 저지른 자라는 것이다(마 5:27-28).

이처럼 죄의 발단으로 파고 들어가 그것을 근원적으로 문제 삼는 성경의 죄 관념은 바로 죄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탈적 동요를 이미 죄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이 전제로부터 볼 때 둘째 아들의 재산지분 청구는 복합적인 동기를 내포한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 생전에 미리 청구한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살아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벌써 죽어 있음을 감히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요구이다. 여기에서 둘째 아들은 마음으로 이미 아버지의 생명과 그 존엄을 밟고 넘어가 정신적으로는 아버지를 죽음의 지경에까지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놓고서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산을 내놓으라고 으박지르는 것은 아버지를 한번 죽이는 일과 같이 정신적으로 패역한 일이다.

왜 둘째 아들은 이와 같은 패역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바라보고 위선적인 충성을 쏟는 형의 행태에 구역질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는 형의 곤궁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사들이고,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야곱만큼 잔머리 굴리는 위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는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솔직담백한 기질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형의 위선 때문에 양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자주 괴로워하고 죄짓기보다는 한번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형도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가는 것이 훨씬 속편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의 마음속엔 소비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물질에 대한 소유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버지를 섬기기보다 돈을 더 우선하여 섬기는 마음자리에 나아갔으며 궁극적으로 그 물질을 우상화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진탕 즐기고 심지어 그것의 노예가 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불사했던 것이다. 그는 먼 나라로 나가 눈먼 소비주의적 광포에 휩쓸려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소진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황폐화 그리고 동물적 세계의 비인간화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야말로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막장인생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범한 패역의 발단이다. 즉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여 아버지처럼 행세하기 위해 아버지와의 근원적인 사랑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탈하려는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 탐욕, 교만, 거역이라는 마음자리이다. 둘째 아들의 홀로서기와 이탈의 순간부터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은 무시를 당했으며, 또한 모종의 상실의 아픔과 고통까지 깊이 겪게 된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그와 같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서 아파하고 연민하는 기다림과도 같은 것이다.

### 3) 죄와 범죄

죄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무겁게 마주하는 것은 유대·기독교적 사상의 전통에 속한다. 신약성경은 죄를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흔히 쓰이는 말이 하마르티아이다. 표적 또는 과녁에서 빗나간 것, 목적지를 이탈한 것을 의미한다. 아디키아는 불의 또는 부정을, 포네리아는 사악 또는 부패를 가리킨다. 파라바시스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노미아는 무법, 즉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을 말한다.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죄에서부터 무법, 불법한 행위의 단계까지 죄가 미치는 스펙트럼은 넓고 깊다.

죄에 관한 상이한 언어들의 용도가 각각 달라도 죄에서 하나의 공통분모는 신 자신의 존재법칙이요 신과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법칙이기도 한 도덕률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거슬리고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죄의 본질은 단순한 탈선을 넘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적인

반항이요, 하나님께로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님처럼 행세하려는 교만이기도 하다.<sup>18</sup>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죄를 구약사상의 연속선상에서 ① 악에 근거한 자유의지의 결과(아담의 범죄), ②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에 대한 의식적인 반항으로 이해한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신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긴 채 사탄의 힘의 지배 밑으로 타락한다.<sup>19</sup>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비록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야기된 죄악이라 할지라도 실은 이미 아담의 타락에서 비롯된 죄의 세력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죄의 뿌리는 이처럼 깊고 그 영향력은 이처럼 끈질기다.

물론 이런 의미의 죄라는 언어는 세속화된 오늘날 인간의 삶 속에서 거의 잊혀져버렸다. 저명한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Karl Menninger)는 죄라는 말이 한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그 이유를 그는 첫째, 이전의 많은 죄들(sins)이 범죄(crimes)로 바뀌면서 그것을 다루는 직책이 교회에서 국가로, 성직자에게서 경찰관에게로 넘어갔으며, 둘째 많은 다른 죄들이 질병으로 또는 질병의 징후로 바뀌면서 형벌이 치료로 대체되었으며, 셋째, 집단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편리한 장치에 의해 죄인의 이탈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아닌 사회전체, 혹은 사회 내의 많은 집단 중 하나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된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는 오늘날의 정신문화 속에서 죄라는 말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취급할 것을 당부한다. 죄는 결코 문화적 금기나 사회적 큰 실수 정도로 대강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죄는 “숨어 있는

<sup>18</sup> 존 스토틀, 《그리스도의 십자가》(황영철/점옥배 역), 1988, 112 참조.

<sup>19</sup> 본 회퍼 엮음, 《윤리학사전》(임흥빈 외 옮김), 1998, 92(기독교윤리).

공격적 성질 - 잔인함, 상처를 입힘, 신 또는 다른 인간들로부터의 이탈 혹은 반란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 누군가가 무시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sup>20</sup>

그러나 이미 계몽기와 합리주의를 거치면서 사회의 법은 다시 돌아가 결합할 수 없을 만큼 종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 형벌과 함께 형법을 구성하는 중추개념의 하나인 범죄는 오늘날 더 이상 종교적 또는 순수한 도덕적 의미의 죄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법익에 대한 유해행위(harmful doing)를 말한다. 죄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이어야 한다.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개인과 사회를 포함한 공동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둘째, 형법규범 위배행위여야 한다. 형법규범이 명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 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부터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sup>21</sup>

형식적 범죄개념에 따르면, 범죄란 형법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갑은 을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이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행위가 상해범죄에 해당하려면 위법해야 한다. 만약 갑이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어행위로 을을 상해했다면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의롭게 간주된다.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상해를 가했다면 그것은 위법행위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행위는 유책해야 범죄가 된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

법하더라도 갑이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유책한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법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유해적 법익위해행위를 범죄로 취급한다. 이 경우 한 형태의 중대한 사회유해성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어디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자는 다음 두 가지 기본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첫째, 살인·상해·강도·절도 같은 중한 사회유해적 행위를 허용하고서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란 없다. 그 즉시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의 형벌권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위만을 처벌대상, 즉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단순한 생각·속마음·계획·의도 따위는 외부적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sup>22</sup>

죄와 범죄의 차이는 죄가 인간의 인격관계의 전체영역, 즉 인간과 신, 인간과 다른 인간, 인간과 환경 등에 미치는 반면, 범죄는 단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삶에 특별히 중요한 다른 피조물의 관계에만 미친다는 점 및 죄가 인간의 내면과 양심의 문제에까지 깊이 관련된 반면, 범죄는 인간의 인격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만 문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죄는 범죄보다 심원하고 넓으며, 따라서 모든 범죄는 죄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죄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인간의 죄와 범죄에 공통된 자기결정(자기선택)의 문제, 의사자유의 문제, 양심의 문제는 양자에게 똑같이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sup>20</sup> 존 스토틀, 앞의 책, 113 이하에서 재인용.

<sup>21</sup> 김일수, 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2006, 14.

<sup>22</sup> Ibid., 15.

#### 4) 자기결정(자기선택)의 문제

둘째 아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동기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소외의 길로 들어선 것은 물론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의 결과이다. 법공동체가 인간을 법신호의 수신자로 삼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인간이 윤리적인 자기선택능력과 자기행위결정능력을 갖고 있음을 전제한다. 여기에서 윤리적인 자기결정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당위요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법의 특별한 당위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한다.<sup>23</sup> 인간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윤리적 자기결정의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점은 일견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근거지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유신론적 실존철학의 입장에서는 실존의 전제인 자기결정을 여러 가지 행위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실존적인 결정과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철학적 관점에서 자기결정은 인간이 의사결정에서 외부의 그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함을 뜻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의사자유를 둘러싼 비결정론(Indeterminismus)의 관점이 핵심이 되고 있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자기결정은 인간이 다른 생물에 비하여 특별히 빼어나게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고 의미내용과 가치 그리고 당위규범에 맞추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의미내용과 가치 및 당위규범에 반하고 의무위반적인 행동은 자기결정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결정에 대한 거역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두 가지 정신능력, 즉 사고작용을 통해 생활관계와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능력, 그리고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 통찰능력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인간은 지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인지적 사고와 이성적 통찰을 통해 인간은 그의 행동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목적합리적으로, 의미와 가치충족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자기결정능력은 법규범의 준수와 법질서 확립에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이 능력이 일면 법적 당위질서의 실현 자체를 가능케 하고, 타면 그것을 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위요청을 지닌 법규범이 수행하는 결정기능은 법이 첫째로 수범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준수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법은 먼저 그들의 이성적 통찰에 호소하여 그들이 자신의 목적과 이해의 추구에서 공동생활의 질서요청과 일치하도록 인도하고,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의 조정능력에 의해 사회유해적인 충동의 분출을 억제하고 회피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당위규범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고된 제재나 그 밖의 유사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학습하게 한다.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법규범의 당위요청을 자신의 가치 체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의식함으로써 그 규범의 의미가 내면화된 이상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자기책임 부담의 원리로 귀결된다.<sup>24</sup>

#### 5) 의사자유 의 문제

인간은 자기결정의 능력을 지닌 존재이지만 개개인의 구체적인 자기

<sup>23</sup> Il-Su Kim,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1983, 111.

<sup>24</sup> H. Henkel, *Die Selbstbestimmung des Menschen als rechtsphilosophisches Problem*, in : Larenz-FS zum 70. Geburtstag, 1973, 6ff.; H. Welzel, *Personlichkeit und Schuld*, in : Abhandlungen zum Strafrecht und zur Rechtsphilosophie, 1975, 185ff.

선택·자기결정을 놓고, 그를 비난하거나 칭찬하려면 그에게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었느냐가 또한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에게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느냐를 놓고 이른바 결정론과 비결정론이 심각하게 대립되어 왔다.

결정주의는 인간의 행태가 전적으로 인과법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범죄를 인간의 소질과 환경의 필연적인 소산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비결정주의는 인간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따라서 인간은 법과 불법 어느 쪽이든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결정주의에 대해서는 인간은 자신에게 작용하는 본능적 충동을 통제하고 그의 행태를 가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존재론적·인간학적 측면으로부터의 반론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비결정주의에 대해서는 의사자유가 대략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에서는 그 경험적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양극단적인 견해는 어느 것도 자신의 논거를 정당하게 내세울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어느 입장이 옳은지에 관해 입증도 반증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다. 결국 결정주의나 비결정주의나 하는 입장의 선택은 하나의 논증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인간은 본능과 환경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정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본능의 철쇄와 환경의 굴레를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에로 부름받은 존재”이다. 인간의 자기결정의 자유는 동물의 삶처럼 “가치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의미 있는 행위 속에서 추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가치에로의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결정의 자유는 애당초 무절제하고 자의적인 자유가 아니라, 의미충만한 삶의 형성을 위한 제한된 자유를 의미한다.<sup>26</sup> 만약 가치실현적인 자기결정의 자유의 이 같은 기본구조를 무시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모든 자유는 그 파괴적인 동물의 야성과 구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sup>27</sup> 물론 인간의 정신능력에도 실패와 과행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윤리적인 자기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sup>28</sup>

문제는 신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신학적 논쟁이다. 먼저 신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비록 세상의 모든 일이 신의 예정행위에 의해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은 선 또는 부패한 성품을 모두 창조했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은 자유행동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sup>29</sup>

모든 죄는 자유의지로 말미암지 않는 한, 중한 벌로 그 죄값을 치러서는 안 된다. 도덕적 책임은 자유의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책임없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죄값을 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또 예견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다 실행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일탈과 죄에 대해 진노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sup>25</sup> Vgl. Lenkner, Strafe, *Schuld und Schuldfähigkeit*, in: Handbuch der forensischen Psychiatrie, Bd. 1., 1972, 20.

<sup>26</sup> H. Welzel, *Personlichkeit und Schuld*, in: Abhandlungen zum Strafrecht und zur Rechtsphilosophie, 1975, 203; Ed Dreher, *Die Willensfreiheit*, 1987, 396.

<sup>27</sup> J. Rhemann, *Einführung in die Sozialphilosophie*, 1979, 20ff.

<sup>28</sup> 김일수, 《한국형법 I (개정판)》, 1996, 80; 한국형법III, 359.

<sup>29</sup> R. Kane,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Free Will*, 2005, 148.

연민을 느끼신다.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저 바라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의 멍에와 사슬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방도를 열어놓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실지언정 우리의 행동에 일일이 개입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을 미리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실제 우리가 하는 일과 달리 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란 결국 제한된 자유의지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결정된 부자유한 의지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것이 중세 스콜라 철학의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sup>30</sup>

창세기의 인간창조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짓고, 그에게 인격적 자유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미리 입력된 정보자료에 따라 로봇처럼 행동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엄성에 잇대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의 신학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자기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과 중에서 어느 것을 따먹느냐는 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였다. 하나님이 미리 금한 바 선악과를 따먹는 쪽을 선택했을 때, 그 위반의 결과인 에덴추방과 고역 그리고 죽음이라는 벌을 자기책임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쫓겨난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적인 행동의 결과로 저야 할 자기책임 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sup>30</sup>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자유의지에 관한 다양한 견해(Boethius와 Aquinas의 신의 영원성에 입각한 해법, Ockham의 반대입장, Molina의 입장 등)에 관하여는 R. Kane, *ibid.*, 152-162 참조.

## 6) 양심과 죄책의 문제

양심은 윤리적인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아의 최종적 기관이다. 따라서 양심은 모든 환상이나 망상을 포괄하는 주관적 확신과는 달리, 언제나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내리게 되는 진지한 인격적 결단을 말한다. 양심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항상 새롭게 쟁취되는 인격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양심은 교육에 의해 계발될 수 있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학습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성숙을 위한 교육은 양심교육을 내포한다. 양심은 인격의 중핵적인 조종기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요구는 인격에게 그에 따라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을 길을 열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도리어 인격으로 하여금 옳다고 승인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 양심이란 개인의 의지와 이성을 넘어서 보다 깊은 곳에 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인간실존의 부름<sup>31</sup>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것 자체와의 일치를 요구하는 소리이다. 양심은 인격 속에서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벌을 과하는 하나의 법정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경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파괴와 인간실존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sup>32</sup> 결국 양심 속에서 각 사람은 신과 인간의 만남, 나와 너의 대화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은 자아의 윤리적 조종기관으로서 항상 세계의 의미와 질서에 자아를 정향시킨다.

양심은 가치개념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미리 결정하도록 하는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매개자로서의 기능은 양심이

<sup>31</sup> 하이데거는 이것을 '관심의 부름'이라 해석했다.

<sup>32</sup> 본 회퍼, 《기독교윤리》(손규태 역), 209 이하 참조.

앓의 총화, 합일된 앓(*conscientia*)임을 전제한다. 인간실존의 존재구조로 부터 볼 때 인간은 세계 내의 존재이다. 인간은 세계 내에서 진정한 자아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영원한 당신인 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아와 타인과 신과 함께 더불어 아는 앓의 영역을 갖고 있다. 이 더불어 아는 앓(*Mitwissen*)의 영역이 바로 양심(*Gewissen, conscience*)이다.<sup>33</sup>

따라서 양심은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신의 뜻을 좇도록 인간을 부르는 내면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과 일치되도록 부르는 내면의 소리이기도 하다. 또한 가장 넓은 차원에서 타인과 세계와 더불어 일치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부르는 내면의 소리도 된다.

이렇게 볼 때, 양심은 개인의 인격과 세계의 매개와 일치를 지도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속에서 앓과 행함의 매개와 일치를 지도하는 기능도 한다.<sup>34</sup> 만약 한 개인에게 그의 양심에 반해서 행위하도록 강제한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간 인격의 관계성을 단절시키는 일이고, 인격의 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책임은 인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는 점과 윤리적 자기결정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존엄성의 근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한, 인간은 원칙적으로 사물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심적으로(객관적인 가치질서에 따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양심범의 문제를 불법의식의 범주나 면책사유의 영역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때문에 책임영역에서 양심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

요하다.

## 7) 형벌의 윤리적 근거

국가형벌의 윤리적인 정당성을 속죄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있었다. 형법 연구문헌과 형사판결 중에서 종종 속죄는 응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응보란 범인이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가해인 반면, 속죄는 범인 자신의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노력을 통해 그의 진정한 자아와 사회에 대해 죄를 뉘우치는 내면으로부터 우리나라는 화해(*Versöhnung*)를 의미한다. 즉 속죄는 범죄인이 형벌을 자기죄책의 속량으로 기꺼이 내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범행을 심리적·정신적으로 힘써 청산하며, 그러한 회오를 통해 자신의 인간적이고도 사회적인 성실성을 되찾는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속죄사상에서만 유독 의미있고 절대적인 형벌이론이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sup>35</sup>

속죄라는 표현이 피해자와 공동사회의 측면에 관련되는 한, 이는 우리의 사회현실에서 우선 ‘복수’, ‘응보’ 또는 ‘낙인’ 등의 어의와 짝을 이룰 수 있다.<sup>36</sup> 여기서는 속죄가 응보를 실행하고 수형자를 낙인찍는 대로 오용될 염려가 많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에 대한 행위자의 속죄란 그의 진정한 속죄작업이 사회로부터 그렇게 인정되든 않든 상관없이 범죄인이 형벌위하를 그의 회심활동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의 일방적 보복과정을 다른 말로 미화한 것밖에 안 되기

<sup>33</sup> Thielicke, *Theologische Ethik*, 1.Bd., 5.Aufl., 1981, 506.

<sup>34</sup> Troger, *Erziehungsziele*, 1974, 93.

<sup>35</sup> 이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W. Trillhaas, *Zur Theologie der Strafe*, 1961, 48; Arth. Kaufmann, *Das Schuldprinzip*, 272f.

<sup>36</sup> Neumann, Schroth, *Neue Theorien von Kriminalität und Strafe*, 1980, 18.

때문에 속죄설은 범인과 사회의 속죄면보다는 자기의 본래적인 자아의 속죄를 주된 문제로 삼는다.

지배적인 초자아(Uber-Ich)를 통해 속죄가능한 정신상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심층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속죄가 우선 자기가책(Selbstbestrafung)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속죄는 우선 강한 초자아를 지닌 범죄인에게만 기대될 수 있다. 그 까닭은 이러한 범인에게서 초자아의 요구는 물론 범죄행위에 의해 일단 무시되었지만 다시 죄책감(Schuldgefühl)의 형태로 그 후 회복되어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형벌의 속죄가능성은 범인의 일정한 심적 성향에 좌우될 것이며 아무 죄책감도 보이지 하지 않는 범인에 대해서 형벌은 전혀 아무 기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속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형벌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은 결국 회귀한 행위자 유형, 즉 자기죄책을 스스로 인정하고 죄의 아픔을 깊이 체험하며, 이로써 형벌을 적극적인 선행의 기회, 즉 인격의 개선과 책임·배상 등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속죄의 용의가 있는 기회범(sühnebereite Gelegenheitstater)’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sup>37</sup>

그러나 만약 속죄가 개개 범행자의 심신상태와 관계없이 형벌의 일반적 기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면 속죄의 의미 가운데서 화해되어야 할 대상인 ‘진정한 자아’는 경험적·현실적 자아가 아니라, 도리어 ‘초월자에 부착된 존재’(Ein dem Transzendenten verhaftetes Sein)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sup>38</sup>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속죄가 인식론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이러한 입장이 합리성과 인간존중성을 지

<sup>37</sup> Maihofer, *Menschenbild und Strafrechtsreform*, 1964, 19. 그러나 이러한 속죄체험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행위자, 수형자에게 얼마나 회귀할 것인가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sup>38</sup> Naegeli, *Das Böse und das Strafrecht*, 1966, 36.

향하며 세계관적으로 중립을 지키려는 형벌의 자유이념에 합당한가는 경험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적·사회적 법치국가질서에서 형벌은 더 이상 그와 같은 형이상학적 속죄개념으로 형벌의 윤리적 정당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죄개념이 형사정책적으로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속죄능력의 배후에 상존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론적 근거로부터 형사정책의 실천적인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속죄는 항상 ‘자율적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인격의 회복’(Wiederherstellung der eigenen Persönlichkeit)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다.<sup>39</sup> 이러한 속죄가능성은 본래 그의 존재론적·인간학적 근거를 인간의 개별인격성에 두고 있고, 그의 실천윤리적 결과는 바로 자기책임이다.<sup>40</sup> 이러한 이유에서 처벌받는 자는 그의 사회성 결핍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아와의 화해능력과 가능성을 타고난 사람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정책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처벌받는 자는 언제나 자기책임에 상응하게 처벌받아야 하며, 자기책임의 정도를 넘어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행형단계에서 재사회화는 자기 자신이 재사회화되려고 하는 성실한 의지의 결단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국 속죄이념은 이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재사회화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속죄가 형벌의 재사회화 목적을 강압적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 형벌이 되도록 내용적으로 구속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up>39</sup> Frey, *Schuld, Verantwortung, Strafe*, 1964, 307, 337.

<sup>40</sup> 인간의 개별인격성과 자기책임원리의 상세한 내용과 그것이 인간존엄 개념의 한 구성요소가 되는 점에 관하여는 Il-Su Kim,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im Strafrecht*, 1983, Diss. München, 78ff.

만약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기책임에 근거해서 속죄를 자기결정의 한 노력성으로 기꺼이 형성해 보일 수 있고 또 보이기를 원한다면, 그 수형자에게 속죄의 가능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속죄가 외부로부터 강요되거나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1차적으로 사회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목표로 삼는 사회적 범치국가는 개인의 윤리적 자기결정을 개인 자신에게 맡기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단편적·보충적 임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형법의 임무와 목적도 제1차적으로 보충적인 범의보호를 통한 사회공동생활의 평화로운 공존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지, 결코 개인의 도덕적 순화나 시민의 윤리적 수준을 고양시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형벌은 물론 수형자에게 유리한 속죄가능성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sup>41</sup> 이 속죄가 법과 제도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의미를 속죄이념은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또한 법적·국가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사적·윤리적·종교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적·법적·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형벌에 대해 그 유일한 근거로 삼기에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속죄는 바로 인간의 자기책임이란 의미한도에서 자기책임을 넘어가는 국가형벌의 한계표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국가형벌의 윤리적 근거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8) 되찾은 아들의 죄와 벌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죄와 벌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는 일견 두 가지

<sup>41</sup> 이런 의미에서 행형의 실제에서 교회(행형법 제31조), 교육(행형법 제32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밖에도 사회사업가, 교육자, 심리분석이나 치료전문가, 정신의 학자 등 각 방면의 봉사와 활동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

상반된 견해가 보인다. 하나는 응보적 정의와 배제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포용의 관점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램브란트의 저 유명한 <탕자의 귀환>이란 유화 속에서도 사랑의 빛에 밝게 조명된 아버지의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얼굴과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은 둘째 아들의 어깨를 보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즉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결합된 아버지의 따뜻한 품 그리고 어두운 그늘 속에서 이 같은 포용을 용납할 수 없는 장자의 냉담한 바리새적인 얼굴과 돈주머니처럼 보이는 그 무엇을 역세게 움켜잡은 오른손이 대조를 이룬다.

집 나갔던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지은 죄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부정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관계에 대한 비극적이고 공격적인 악용 내지 거부이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요, 사랑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다. 오늘날도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에서 인간에게 온통 관심을 쏟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인간 사이에 사랑과 배려로 짜여진 평화로운 공존관계가 인간의 근본상황(Grundsituation)이라면, 죄란 이러한 근본상황의 부정, 즉 사랑의 부정이다. 이 근본상황을 부정하고 파괴하면서 인간의 삶을 어두운 한계상황(Grenzsituation)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다.<sup>42</sup>

사랑의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벌은 이 근본상황의 부정을 부정하여 한계상황을 다시 근본상황으로 회복시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사랑의 부정의 부정, 즉 사랑의 회복을 의미한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인이라 할

<sup>42</sup> 김일수, 《위험형법·적대형법과 사랑의 형법》, 고려법학 제65호 (2012. 6.), 24 이하.



지라도 그는 근본상황적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할 인간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가슴속 한구석엔 여전히 사랑의 가능성,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 이 점을 외면하면 죄만 보고 죄를 저지른 ‘관계 속의 인간’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죄의 심각성 못지않게 벌의 무게도 중요하다. 벌이 일면으로는 인간의 최악된 본성에 맹렬한 분노를 쏟아 붓지만, 분노 그 자체가 벌의 목적일 수 없다. 오히려 죄로 얼룩진 인간본성의 찌꺼기를 벗겨내고 그 속에 감추어진 사랑의 잠재력을 복돋우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일깨워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형벌이 담당한다. 벌을 통해서 인간이 인격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잠시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죄의 심각성과 형벌의 무서움이 보여주었던 저 바리새적 정의에 입각한 관계단절과 공포의 형벌을 사랑과 희망의 형벌로 변화시키는 일이 형벌의 미래음악이다.<sup>43</sup>

증오의 채찍 대신 사랑의 매가 담겨 있는 것, 강철로 된 수갑 대신 사랑의 줄이 매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형벌이다. 물론 형벌이라는 사랑의 매도 고난을 수반한다. 모종의 상실을 수반하지 않는 형벌이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고난은 ‘고독해방의 심리학’의 저자인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니에(Paul Tournier)가 말했고, 영국 성공회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틀(John Stott)가 인용했던 ‘창조적 고난’의 의미를 지닌다. 모종의 상실이 창조성을 자극하여 변화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고난과 고통이 바로 성장의 기회인 셈이다. 고통의 초기단계에서 수행자들은 미움과 분노, 절망의 반응을 보이지만, 점차 과형이라는 고통

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돌아온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sup>44</sup>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결코 관계단절이나 차별화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으로의 관계회복과 통합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범죄는 같은 범죄로, 악은 같은 악으로 되갚아져서는 안 된다. 살인자의 생명은 제도적인 살인을 통해 되갚아지는 방법으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파괴와 단절의 극치일 뿐이다. 살인에 대한 보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Shillum 또는 Shalom은 평화를 의미하는 Shalom과 어근이 비슷한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 형사정책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흉악범죄의 재범·누범현상에 대한 통속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왜 형벌을 통해 어떤 사람은 변화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변화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유전적 성향보다 외부의 다른 사람 또는 제도의 운용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사랑이 없는 형벌은 재범의 원인이 되기 쉬운 반면, 사랑이 있는 형벌은 기왕의 죄책과 수치·고통이 변화·성숙의 열매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웅보적 정의에 입각한 아주 오래된 감옥 제도, 교도소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질적으로 선한 사랑의 형벌, 거듭남의 지평을 열어 가는 교도소 제도가 더욱 절실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45</sup> 사랑만이 인간심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낳고 새로운 삶을 향한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신·구약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죄의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 즉 내심의 미움이나 가벼운 실언까지도 심각한 불의로 여기시며, 그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불태우기도 하신다. 모

<sup>43</sup> Il-Su Kim, *Das Liebesstrafrecht hinterm Berge des Feindstrafrechts*, 고려법학 제49호(2007), 19 이하; 김일수, 〈나의 형법학 이해 30년〉, 고려법학 제62호(2011), 1 이하 참조.

<sup>44</sup> J. Stott, *The cross of Christ*, 1986, 397.

<sup>45</sup> H. Zehr, *Restorative Justice*, 2005, 165.

든 사람은 자신의 언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며,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떨어질 죄의 값, 즉 형벌은 사망이다(롬 6:23).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초하고 있는 재판적 정의(Mishpat)이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충족되었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분의 고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정의의 요구를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하게 하셨음을 말해주는 증언이다. 정의가 불의한 자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해서 집행되게 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절묘한 일치와 조화를 볼 수 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 안에서의 정의요, 하나님의 사랑도 정의 안에서의 사랑이다. 그것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의 합치의 극치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정의와 정의로운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이며, 이 본래적인 정의를 제데카(Zedeka)라 부른다.<sup>46</sup>

다시 귀환한 아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공격적으로 단절시키고 파괴함으로써 죄의 길로 나갔다. 피나리 붓집에 유산의 분깃을 팔아 모은 돈이 두둑했을 때 그것은 죄의 불구덩이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내는 우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등에 진 우상은 점점 마모되어 가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 극도의 궁핍 속에 빠져들어 간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자연도 거부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한 결과였다. 그는 돼지 치는 이방사람의 노동노예가 되었음에도 배고픔을

<sup>46</sup> K. Braun, *Justice and the Law of Love*, 1950, 30; 김일수, 《위험형법 · 적대형법과 사랑의 형법》, 26 이하.

채울 길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 찢절하니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 셈이다.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는 여정은 이렇게 혹독한 것이다. 그는 굶주려 죽을 지경까지 인생의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거기서 그는 문득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기억 속으로 회상해 낸다. 물론 그것도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이다.

그리고 그는 회심한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용기도 없다. 단지 아버지 집의 품꾼 중 하나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극적인 회심의 전환점에서 집을 나간 아들은 정신적으로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는다. 유산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죽어 품꾼의 자리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별로 짓궂은 죄를 짓지 않았던 아들이 이제는 그냥 손쉽게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변화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 끝자락에서 죽음을 맛보고 돌아서서 거듭나는 데 있다. 회개와 중생의 절묘한 조합이 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처럼 행형제도 속에서 교정은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재소자들이 범죄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인격으로 회심하고 변화를 체험하여 피해자 및 사회와 화해하고, 진정한 자아와도 화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신과 화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예수님이 범행현장에서 붙잡혀 온 간음한 여인에게 정죄 대신 죄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다.<sup>47</sup>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과 치유적 사법의 길이다.

그것이 저 렘브란트의 유화 속에 표현된 정의로운 사랑의 손과 사랑스러운 정의의 손으로서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보듬는 아버지의 다른 두 손

<sup>47</sup> S. J. Barrows, *Jesus as a Penologist*, 1902, 12.

이 암시하는 손길의 의미이다.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아버지의 환희와 희락으로 가득 채워진 잔치의 진정한 의미는 아들의 육적인 귀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돌아온 그의 정신적인 귀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들의 거듭난(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생명의 지평 위에 펼쳐놓은 놀이마당에서 아버지와 아들, 가족들과 이웃들이 한데 어울려 엮어내는 기쁨과 즐거움의 출판인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복원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만큼 아버지도 아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왔다. 생명적 연합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이 출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아버지는 머슴의 자리로 비하된 아들의 처지에까지 정신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들의 빈자리와 상실의 아픔은 원래 마주하고 있어야 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의 한 축이 무너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아들의 속죄적 귀환과 아버지의 영접으로 아버지도 화해와 화목의 새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비록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기대는 성취된 것이다.

#### 4. 결론

현대 형법의 조류에서 죄와 벌의 어두운 단면을 응보정의로 맞서야 한다는 물결이 거세다. 반복되는 엄벌주의의 회귀(punitive turn)가 그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러나 죄와 벌의 문제에서 죄를 저지른 개인만을 고립시켜 갈라 세워놓고, 모든 죄값을 그의 어깨에만 무겁게 지워야 한다는 관점은 진실로 바리새적인 율법의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 크고 작은 불법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가차없는 처벌과 감시에 너무 손쉽게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

죄값을 묻는 공동사회의 의식률은 가혹해서 죄의 역사보다 형벌의 역사가 훨씬 잔인했다는 기록도 갖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은 인간해방을 위한 제도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이를테면 동해보복에서 속죄형으로 넘어오면서 속죄예물은 일단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이자를 덧붙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소 한 마리를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아버리면 소 다섯마리로 갚게 하고, 양 한 마리를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아버리면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출 22:1). 또 도적질한 것이 아직 살아 있으면 소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출 22:4). 그러나 국가의 공형벌로 넘어오면서 엄혹형의 시대도 있었으나 근대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얼굴을 지닌 인도주의적 형벌관이 점차 확립되었다. 따라서 형벌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 자기책임·자기죄책의 한계 안에서 목적합리적인 형벌로 자리잡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문제를 다루어 오면서 인류사회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문화권에서든 공동체적인 사회윤리적 비난과 낙인,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추방 또는 배제를 일삼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처벌의 변함없는 속성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문둥병자들과 절름발이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대응이나 아니면 돌로 쳐 죽이는 처형 따위를 보면 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형벌의 이 같은 속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신성한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킨 범죄자를 공동체와 분리된 타자(他者)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신성성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동과 서방에서 행해졌던 이 같은 죄와 형벌관에 일대 전기를 마련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죄를 타인의 몫으로 분리시켜 죄인에게 전담시키는 응보적 사고에 반기를 들고, 남의 죄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며 죄에 대한 처벌의 고통을 홀로 지고 가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된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으셨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

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예수는 죄의 문제를 분리와 배제와 단절의 문제로 풀지 않고, 사랑과 연대에서 비롯된 관계회복의 문제로 풀었다.<sup>48</sup>

예수가 가르쳐 준 새로운 길이 무려 2천년 전 일이건만 오늘날까지도 인류사회는 죄와 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돌아온 아들 비유에 나타난 장자처럼 모세의 대열에 서서 공동의 죄책보다는 바리새적으로 정죄하고 응보하기에 바빴다. 우리 가족,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를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에서 절교하고 추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얼굴에 얼룩진 죄의 흔적을 씻겨주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바리새파인 첫째 아들은 밖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의 예수와 똑같은 심정으로 그를 안으로 끌어안자고 말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예수의 구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의 죄와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세워줌 그리고 그들의 화해와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던 큰아들, 새 생명과 사랑의 잔치 자리로 나오기를 거부했던 그 아들 역시 새롭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마음자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sup>49</sup>

<sup>48</sup>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손진 옮김), 2010, 117 이하; 김일수, 《형법실현에서 사랑과 희망의 이념》, 남상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6; S.J. Barrows, *Jesus as a Penologist*, 1902, 10.

<sup>49</sup> 김병중, 〈내 영혼의 책갈피(4):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국민일보 2012. 7. 28. 오피니언 면 참조.